

- 주요활동
- 공정언론지향·언론문화창달
 - 언론관계 출판·연구발표
 - 언론상 시상
 - 언론인 복지 후생사업

퇴직언론인, 그들은 누구인가 첫 ‘실태조사 보고서’ 나왔다

大韓言論人會·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사업 결실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쓰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현역 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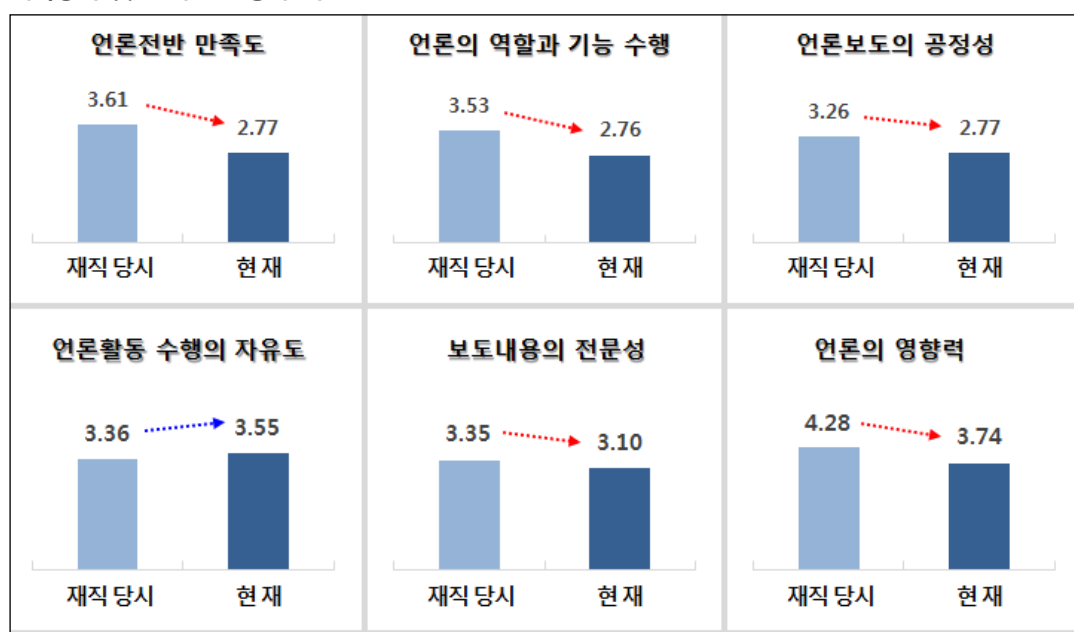
자신의 내일을 모르는 언론이 오늘을 제대로 알고 쓰고 있을까. 현실을 모른채 어떤 언론정책인들 실효성이 있을까.

‘미지의 내일-퇴직언론인’ 그들은 누구인가. 여전히 여론의 주도층인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역 후배 언론인들의 내일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어 보고자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그 결과를 내놓는다.

한국 최초, 한국언론 100년에 처음인 ‘퇴직언론인 실태조사’를 대한언론인회가 기획한 것은 지난해.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과 공동사업으로 펼쳐 처음 보는 언론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퇴직언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퇴직이후의 커리어, 노후대책,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 기여방안 및 퇴직언론인 지원정책은 물론 향후 현역 언론인들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 실태조사는 총 13개 언론사 사우회의 협조를 얻어 사우회 명부(유효명부 1,807명)를 확보하였고, 10년 이상의 기자경력자를 대상으로 지난 8~9월

재직당시 및 현재 언론평가 비교



* 5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않았다)~5점 매우 그렇다(그랬다)

“언론 영향력 크게 떨어졌다” 우려

사이 우편, 전화, 이메일, 온라인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한 결과 총 600명이 응답하였다(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4.0%p). 응답자 평균연령은 72.5세로, 70대가 50.7%, 60대 21.7%, 80대 이상 18.0%, 50대 이하 7.2% 순이었다.

퇴직 언론인들은 언론사 재직 당시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으며(5점 척도에 4.28→3.74)

‘언론 활동 수행의 자유도’는 조금 높아졌다(3.36→3.55)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 전반에 대한 만족도’ ‘언론의 역할과 기능 수행’ ‘언론보도의 공정성’ ‘보도내용의 전문성’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분야 모두가 재직시보다는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국민이 언론 전반과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퇴직언론인은 국민들이 다른 매체 대비 ‘신문’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인터넷 언론’을 덜 신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언론 자유 제한 요인으로서는 언론사 재직 당시와 현재 모두 ‘정부나 정치권력’(재직당시 57.2%, 현재 24.7%)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 ‘정부나 정치권력’ 외에 재직 당시에는 ‘사주/사장’(9.7%), ‘광고주’(7.2%), ‘편집, 보도국 간부’(5.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광고주’(19.2%), ‘사주/사장’(12.2%), ‘기자 자신의 자기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6.5%) 등의 순으로 다소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언론인의 54.3%는 자신들의 언론사 재직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편집/보도국 내 기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매우 저하되었다 9.2% 저하되었다 45.2%)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주된 이유는 ‘언론사 경영위기’(32.8%), ‘언론인으로서의 비전부재’(27.3%), ‘언론사와 언론인의 여론 영향력 축소’(16.3%), ‘업무를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11.0%) 순으로 지적되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원로회우)



그래도 이만한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2015년 송년회 겸 팔순회우 축하연

12월 22일(화)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대한언론인회는 12월 22일(화)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송년 모임과 팔순회우 축하연을 갖는다. 지난해까지는 칠순축하연을 베풀었지만 회원총회에서 올해부터 팔순잔치로 하자는 결의에 따라 팔순 축하연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날 송년 행

사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승은 여사가 출연해 경기민요를 열창한다. 이승은 여사는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현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명장이다. (※ 회우 초청장은 이 기사로 대신합니다.)

퇴직언론인 경력 활용방안 아쉽다

첫 실태조사 보고서… 65%가 일거리없이 ‘消日’

1면에서 이어집니다.

퇴직언론인 실태조사 대상자는 평생 평균 3.2개의 직장에서 33.4년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순수 언론사의 평균근무기간은 27.8년이었다.

최대 5개까지의 직장정보를 파악해 퇴직언론인의 직장경험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직장경력을 통틀어 볼 때 퇴직언론인이 생각하는 경력 대표부서는 사회부 25.8%, 편집부 16.8%, 정치부 11.5%, 경제부 9.2%, 사진부(카메라) 6.0%, 문화부 5.8% 등의 순이었다. 해당 직장 재직시 경험한 최종 직책 또는 직위는 기자 22.9%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국장 10.2%, 부장 10.0%, 위원 6.7%, 사장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사유로는 정년 47.5%, 권고사직 해고 명퇴 등이 27.8%, 직업불만족 7.0%, 인간관계 스트레스 근무분위기 등 4.5%였다.

퇴직 전 현역시절에 이미 퇴직이후를 준비했었다는 사람은 22.5%뿐이었고 준비를 못했다는 사람이 73.8%로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퇴직이후 현재까지도 대가가 있는 일을 하고있는 사람이 35.5%였고 현재 종사분야는 38.0%가 전문직. 17.4%가 경영관리, 14.6%는 자영 판매 사업, 서비스업이 8.5%로 나타났다. 퇴직 후까지 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54.9%, 자아실현을 위해서 16.4%, 사회기여를 위해 15.5%, 소일거리로가 4.7%였다. 일하지 않는 이유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63.0%로 많았고 건강 때문이 25.0%, 여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3.1%나 있었다.

퇴직언론인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언론분야의 자문역할(위원, 역) 16.2%, ○저술 집필 문필활동 등의 여건조성 15.5%, ○청소년지도 14.8%, ○대학 강의 8.8%, ○홍보기획분야의 전문성 8.2%, ○시니어기자단구성이라는 아이디어가 5.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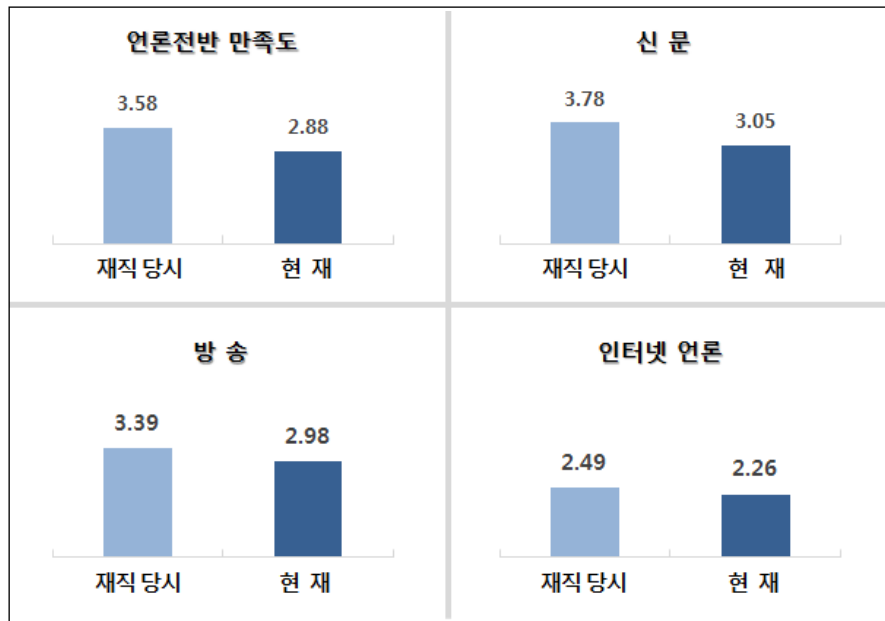
또 퇴직언론인들이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묻는 대답으로는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언론분야 자문역할 13.0%, ○언론경력을 살릴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7.8%였다.

퇴직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프로그램 및 지원방안에서는 ○취업훈련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13.5%) ○언론인 연금 지원(7.8%) 및 경제적 지원 방안(7.7%) ○학교나 각종기관, 단체 등 강의 제공(6.0%) ○집필 저술지원(5.7%)순이었다.

경제상황 설문에서는 ○…재직때 63.2%가 中의 上이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현재는 37.5%로 줄었고 ○…재직때 中의 下였던 13.7%가 현재는 35.3%

재직당시 및 현재 국민의 언론신뢰도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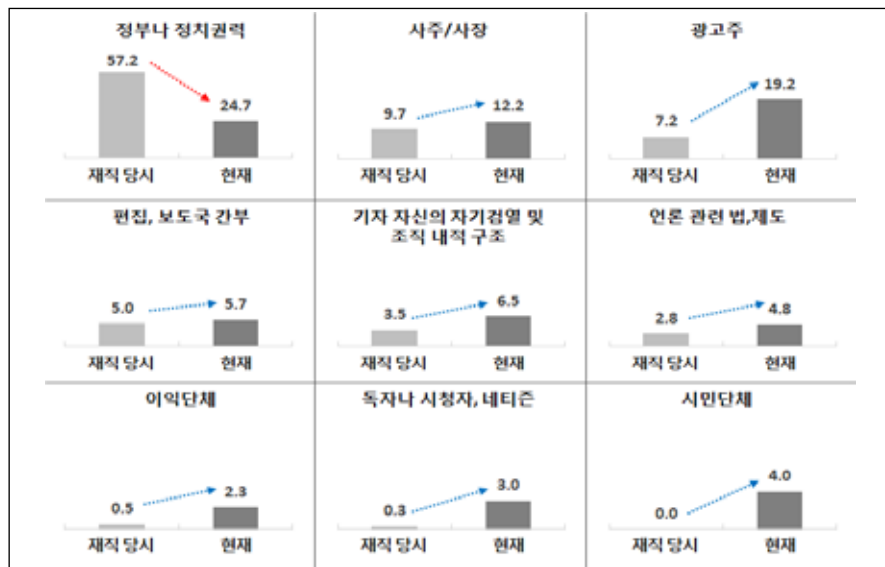
(N=600,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 5점 척도: 1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않았다)~5점 매우 신뢰한다(신뢰하는 편이었다)

재직당시 및 현재 언론자유 제한요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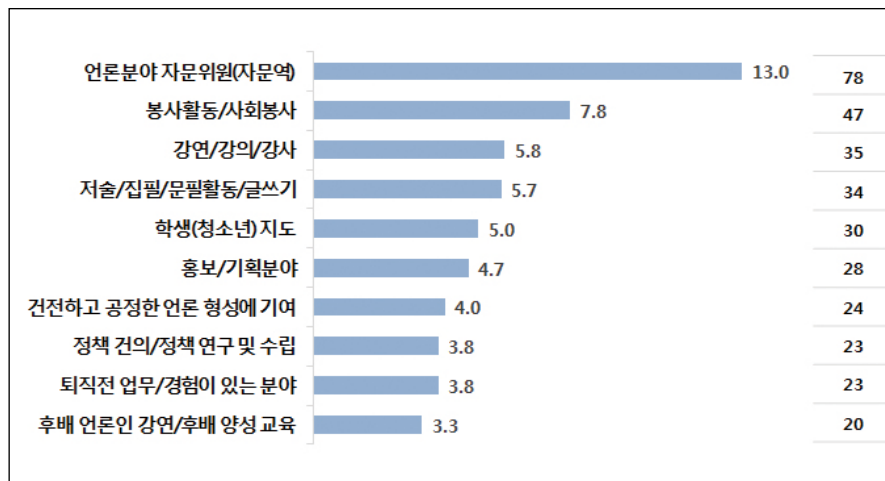
(단위: 점)



언론분야 자문-저술 집필-사회봉사 취업훈련-경제적 지원 등 강구해야

퇴직언론인 사회 기여분야

(복수응답, N=600, 단위: %, 개)



* 상위 10개 응답값 제시

로 늘어난 분포였다. 그만큼 “가난해졌다”는 것이었다.

소득원은 *연금수입이 30.7%(이중 국민연금이 88.0%) *저축활용 17.8% *임대수입 16.8% *자녀도움이 90%.

한 달 적정 생활비는 평균 320만원이고 실제생활비는 평균 300만원 미만. 구간별로는 아직도 ○300만원~400만원의 실제생활비가 18.0%였고 ○200만원~300만원이 28.5%였다. ○200만원 미만이 24.7%, ○100만원 미만 3.8%, ○50만원 미만도 0.7%였다.

퇴직언론인들의 공과 사 간의 관심사항 설문(복수응답)에는

공직관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정치개혁이 38.2% #경제안정이 36.7%로 높았고 #부정부패청산 27.3%, 대북문제, 통일문제, 26.8% #노령화 문제가 26.0%였다.

개인 관심사는 역시 #건강문제가 65.0%로 가장 많았고 #가정경제문제 14.5% #손주 양육과 교육문제 3.3% #자녀와의 문제와 본인의 취업문제가 각각 2.7%였다.

퇴직한 원로언론인들이 처음 언론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를 묻는 사항에서

○창조적, 능동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25.3% ○사회문제점을 파악, 사회정의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 24.3%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17.2%였다.

이렇게 선택했던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자부심을 보인다. 매우 만족을 10, 매우 불만족을 0으로 했을 때 평균만족도가 7.34점으로 나왔다.

언론 환경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 상황을 보면 (4점 척도·괄호 안은 만족도)

-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3.43점(2.95점)
- …언론의 자율성-3.23점(2.84점)
- …회사의 편집, 편성정책-3.22점(2.70점)
- …수용자에 대한 봉사-3.21점(2.77점)
- …직업의 안정성-3.14점(2.77점)
- …보수-3.05점(2.69점)
- …전문성 개발기회-3.03점(2.61점)
- …승진가능성-2.88점(2.72점)
- …후생복지-2.88점(2.44점)
- …노후준비-2.55점(1.90점). 역시 당시의 언론인들은 노후준비를 소홀히 했거나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조사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언론인 재선택의향은 어떤가를 알아봤더니

○다시 하겠다는 의욕이 68.0%, ○아니다 31%였다. 그런데 ○40년이상 경력

3면으로 이어집니다.

새해 경제회복 · 총선 올바른선택 절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결산 좌담

참석자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전 문화일보 사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조용중 ·전 연합통신사장

〈가나다순〉

사회: 문명호 본회 주필

정리: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사진: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때: 2015년 11월 16일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4·5면에 좌담내용 지상중계



왼쪽부터 송복 교수, 조용중 사장, 남시욱 교수.

인상, 중국 경제둔화, 신흥국 금융불안, 국내기업 구조조정 등 4각 파도를 극복해야 하며 총선을 맞아 정치쇄신을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복 교수는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국회의원들을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소환제와 관료망국이 되지 않도록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파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세 원로는 나라 바로 세우기의 최대 관건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온 엄정한 법치확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9개 경제활성화법 등 계류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급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실업 타개 ▲규제혁파를 위해 법률체계를 포지티브 시스템(역법체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순법체계)으로의 획기적 변경 ▲교육부 폐지 등 정부 공공기관 대폭 구조조정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좌편향 왜곡내용을 바로 잡아 정상화 후 검인정 전환 ▲G20 위상에 걸맞는 자주외교 추구 ▲성급한 통일논의 지양하고 내실 있는 전략수립 ▲소통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등의 기자회견 확대 ▲언론의 탐사 보도 강화와 비판적 역할 기능 제고 ▲언론의 저질 국회의원 후보 낙마 보도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2]

4각 파도의 경제난 극복과 총선에서의 진실한 국회의원 선출이 새해 2대 과제로 지적됐다. 또한 국회의원소환제와 관료파면제를 도입, 이를 시민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도자는 NGO(비정부기구로서 시민단체)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법치와 법질서 확립이 나라 바로 세우기의 최대 관건이며 취약한 공권력이 정당하고 철저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 강조됐다.

대한언론인회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용중 전 연합통신 사장,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 원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은구 대한언론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언론은 올 한해 어젠다로 ‘나라 바로 세우기’ 주제를 설정해 매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 부문에 걸쳐 현실진단과 대안제시에 부심했다”면서 “그 결산 겸 새해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명호 본회 주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서 조용중 사장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중복세력이 버젓이 불법활동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시욱 교수는 “내년에 경제와 총선이 2대 과제”라며 “경제는 미국 금리

2면에서 이어집니다.

자의 의욕은 90.9%가 다시 언론인을 선택한다였고 ○30~39년 경력에서 70.3% ○10~19년 경력에서 62.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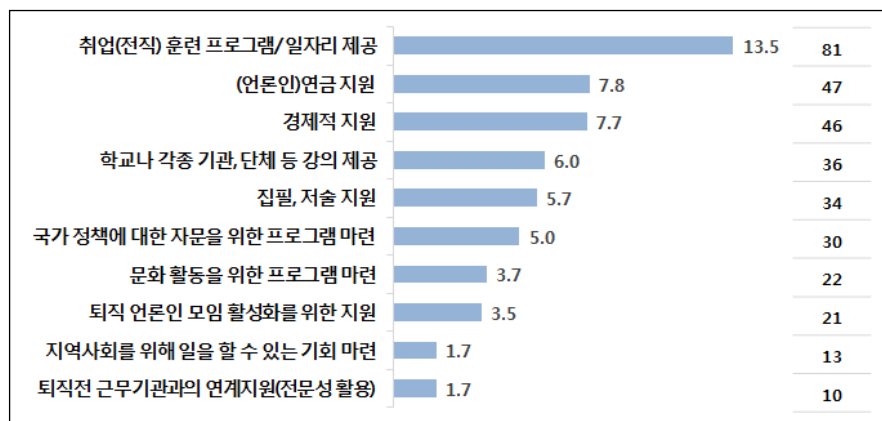
전국 종합일간지 출신들의 신문기자 재선택이 76.9%인데 비해 방송기자출신들의 방송 재선택은 87.8%로 더 높았다. 이러한 퇴역들의 의지 타인인지 언론인으로서의 자신의 전문성 평가도 매우 높다. 응답자의 71.7%가 언론사 재직 당시 스스로 ‘전문성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언론계 종사 후배들에 대해서는 35.8%만이 ‘전문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역시절의 보람과 아쉬움을 묻는 조사에서는

- 〈보람〉 ○특종, 사회적이슈, 역사적 현장 취재보도 -26.0%
○사회비판 시정, 정책 제시-11.3%
○정의사회 구현-10.8%
○경쟁 속의 성취감-8.2%
○약자의 고충해결-6.8%
〈아쉬움〉 ○업무관련 전문성부족-13.2%
○공부, 자기계발부족-10.0%
○언론규제 심했다-8.7%
○권력에 대한 정의실현 어려움-8.0%

퇴직언론인 대상 정책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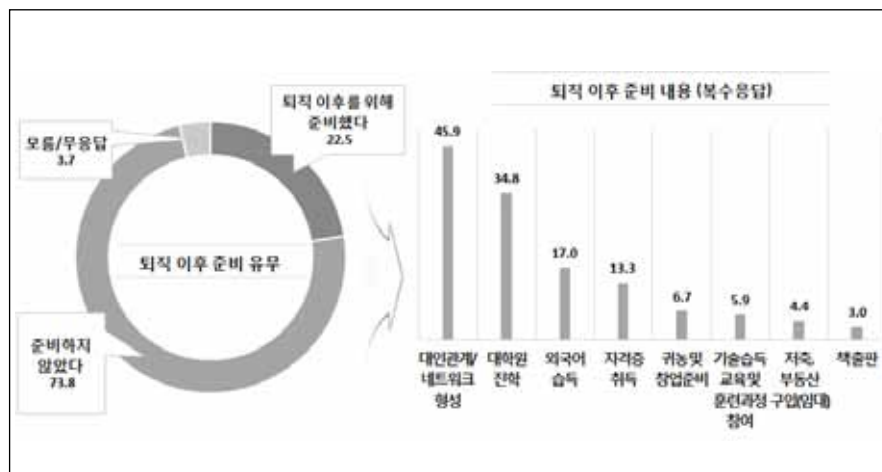
(복수응답, N=600, 단위: %, 개)



* 상위 10개 응답값 제시

퇴직 이후 준비 여부 및 내용

(N=600/N=135, 단위: %), 모름/무응답 제외



퇴직 후의 라이프스타일은

○매체이용도는 *신문 92.0% *TV 90.8% *고정인터넷 56.3% *이동인터넷 42.2% *잡지 27.2% *라디오 24.3%였고 ○하루 이용시간은 *TV 108분 *신문 71.5분 *고정인터넷 44.3분 *이동인터넷 21.8분 *라디오 17분이었다.

○TV시청 빈도는 ‘자주 본다(매우 자주+자주)’는 응답자가 *뉴스 시사 86.5% *교양 다큐 47.2% *스포츠 39.3% 등이었다.

여가활동으로는 ○산책 신문 잡지 TV등의 휴식활동 36.0% ○등산 낚시 수집활동 등 취미오락 17.3% ○봉사 종교 동호회 등 11.3%였고 ○골프 배드민턴 등 스포츠 11.0%의 생활이었다.

현직 후배들과의 교류 문제에서는 ○후배들과의 정기모임 등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2%였고 후배들과의 교류필요성에서는 67.3%가 필요하다는 대답이었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언론인 실태조사 보고서는 12월중 발간돼 우리 회우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 작업에는 대한언론인회에서 정운종 상임이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오수정 팀장, 강원대학교 김세은 교수, 전문조사사업체인 글로벌리서치에서 강수영 부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2]

공권력 철저하게 집행필요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결산 좌담

金銀九(인사말) 2015년은 광복 70주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67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해방에 이어 자유민주 독립국가를 세운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라 바로 세우기' 어젠다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나라가 여러모로 불안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으로는 서울도심에서 집단시위가 벌어졌다 하면 반정부 성향의 극렬한 불법시위로 무법천지를 이루고 시대착오적인 프롤레타리아 무력혁명을 외치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기까지 합니다. 밖으로는 프랑스 파리에서 보듯 이슬람 극단세력의 무자비한 테러행위로 인한 집단살상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돼 나라 안팎이 불안한 실정입니다. 대한언론은 올 한 해 다달이 안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쳐 '나라 바로 세우기' 주제를 놓고 현실진단과 대안제시에 골몰했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 고언을 드렸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치혁신을, 교육계에는 탈이념 교육을, 그리고 범국민적 법치주의 확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결산 겸 다가오는 2016년 새해의 과제와 처방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명호 주필이 좌담사회를 맡아 주겠습니다.

文明浩(이하 사회) 먼저 박근혜대통령의 소통과 인사혁신문제부터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趙庸中(이하 趙) 대통령의 소통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넓게 보아서 정치권과 국민과의 소통을 살펴보면 그것부터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宋 復(이하 宋) 박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 그의 소통에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애절함 진정성 간절한 호소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국회에 대한 당부도 그렇고요. 그러나 훗날 정치사에서 평가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만, 현재로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인사문제는 어떻습니까.

宋 조선시대 율곡 선생이 "조선이 날로 썩어가니 넘어져가는 큰집과 같다. 무너져 가는 집을 고치려면 굉장한 대목장을 모셔 와야 하는데 누굴 데려와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해요.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떤 인사를 했어도 다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지, 특별한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南時旭(이하 南) 소통이란 쌍방향인데 박대통령이 여성이고 여당총재가 아니란 점에서 소통에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박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연설을 하는 건 상당히 성실해 보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전화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안 하나를 갖고도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설득전을 합니다. 야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야당이나 여당, 국민설득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박대통령이 취임이후 정당대표를 만난 게 몇 차례 안 되죠. 교과서문제만 하더라도 당초엔 금년 7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었다는데 순서가 잘 못 됐어요.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만부득이한 측면이 있는데 현행교과서의 문제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걸 바로 잡으려면 현재로서는 국정화 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국정화가 먼저 나오고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거버넌스 효율면에서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이라기보다 청와대 보좌진이나 행정부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사회 친북세력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趙 우리나라에선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그 연장선에서 종북세력이 버젓이 활동을 해도 제대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공무원들 특히 경찰처럼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사명감 충성심을 북돋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宋 우리 사회의 통합대상은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교육의 대상이며 법적 조치의 대상입니다. 헌법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대체로 인구의 5% 정도



남시욱 교수.



송 복 교수.

헌법가치 共有 않으면 법적조치해야 南北韓 자유통행방안 꾸준히 추진을

고 대부분 사회 저변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회학자들이 볼 때 한 20%가 됩니다. 사회 저변층도 있지만 상층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잘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 이석기 전 의원이나 통합진보당을 구속 해산시킨 건 이 정부의 공적입니다.

南 작년에 현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은 원내 교두보를 제거한거죠. 그러나 지난 11월 14일 광화문시위를 보면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고 대통령 물러가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위헌 정당이 해산됐는데 위헌적 사회단체는 그대로예요. 언제까지 방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버스를 1,500대나 전세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공권력이 너무나 취약해요. 야당은 불법폭력 시위를 보고도 아무 소리 안하고 오히려 두둔하며 정부에서 과잉진압을 했다면 비난하는 그 속셈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 갖고 국정을 어떻게 맡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회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불법폭력시위를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 없겠습니까.

南 얼마든지 가능하죠.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까. 요즘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 가운데 진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승만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박차버렸는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김구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미국 괴뢰인 것처럼 김일성도 소련의 괴뢰라고 비판하구요. 새로운 형태의 반미 프로파간다라 할 수 있습니다.

宋 중국에 너무 많이 기우는 거 아니냐, 대일관계 개선이 안 되고 공고해야 할 대미관계가 흔들린다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한미동맹관계의 공고성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무역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일본은 38%까지 올라갔다가 7%로 중국의 3분의1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 일본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고 실제로는 우려할 바가 아닙니다. 중국은 가치국가가 아니어서 중국에 경사될 수 없어요.

南 우리나라 보수층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보고 우려의 눈빛을 보였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외교를 하고 결정적일 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G20국가로서 발언권을 넓혀야 합니다.

사회 요즘 자주 언급되는 통일대박론은 어떻습니까.

趙 박대통령이 통일논의에 불을 붙인 게 사실입니다. 통일논의가 그렇게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염원을 너무 쉽게 상품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통일에서 배워야 할 건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한 쪽에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宋 통일을 두려워하는 쪽은 북한입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거대한 블랙홀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심합니다.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려나 조선에서 하는 일은 3일이면 바뀐다거나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금방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일대박 논란도 3일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필요한 것은 남북 양쪽에서 함께 평화롭게 나가는 일입니다. 대만과 중국처럼 자유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를 막으려 하지만 남한이 꾸준히 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南 소통과 관련되는 애근데 박대통령 정부는 통일논의에 대해서도 국민과 야당 언론을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박 정부 출범이후 통일을 위한 전제로서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아주 중요한 제안 두 가지를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느긋하게 통일 지구전을 펴야 합니다. 독일에서처럼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 포용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사회 오늘의 한국 언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趙 언론이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정부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3년 가까이 되는데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기자회견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회견은 기자들이 무슨 위치에서 보도하느냐를 가늠하는 좋은 척도입니다. 연초에 어느 대통령이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는 있어야 합니다. 신문사나 언론단체, 출입기자들조차 엉거주춤 지나치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의 역할과 언론을 다루는 권력속성이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南 정치저널리즘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문제제기와 어젠다 설정을 통해 선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1야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면서 여당에서 야당요구를 들어주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야당도 선진화법의 문제를 시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애근데도 언론은 그냥 지나칩니다. 반독재를 선도하는 등 과거 한국언론의 역사는 찬란했습니다. 교과서문제만 하더라도 정부 교과부를 비판하는데 언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5면으로 이어집니다.

위헌적 사회단체 다스려야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결산 좌담

4면에서 이어집니다.

宋 경제지를 포함해 4개 신문을 집에서 보는데 학생들 보고 신문 하나가 책 한권과 맞먹는다고 말합니다. 주로 칼럼과 사설을 읽는데 읽고 나면 또 시간만 허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또 읽지만 남는게 없고 메시지가 없어요. 천편일률적입니다. 어느 신문을 읽었나 할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전문성 차별성이 없어요. 국사학계를 갈라파고스 학계라 합니다. 진화 안 된 섬이 갈라파고스입니다. 한국사를 버린 건 다른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바로 한국사 학계입니다. 언론은 언론하는 사람이 버린 셈이구요.

사회 이제 내년 맞게될 과제들을 해아려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宋 한 경제지가 창립 50주년 기념기획물로 5천명 상대 설문조사결과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장애 저해집단으로 국회와 정치인을 꼽은 사람이 79%나 됐습니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죠.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가장 중요한 법안이 9개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때부터 제기됐는데 1430여일 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노동개혁법안도 그 중 하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의료 금융 관광 법률 한류저널리즘 패션디자인의 7대 현대서비스업 발전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공업사회를 거쳐 서비스산업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미국은 전체 산업 종사자의 89%, 유럽선진국은 모두 80%를 넘고 우리는 69% 수준입니다. 똑같은 매출액 기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고용창출효과가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정도 차이납니다. 성장기여도도 높아 서비스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면 국민1인당 1천달러 소득증가와 경제성장률 0.5%이상 증대효과를 가져옵니다. 서비스산업이 나라 바로 세우기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7대 현대서비스업의 특징은 창의와 혁신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야당은 Opposition Party, 반대당입니다. 무얼 반대해야 합니까. 잘못된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데 우리 야당은 잘 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핵심의무는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입니다. 이 세 가지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소환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료망국이 되지 않도록 관료파면제를 시민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혁명이 필요하고 그 주도자는 시민단체(NGO)가 돼야 합니다.

趙 우리는 흔히 일상적 대화에서 정치와 국회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반대를 위해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도 합니다. 많은 세비를 받고, 하는 일도 별로 없이 특권만 누립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 그렇게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기대하지만 환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가부채가 많아 비상인 이탈리아가 상원의원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215명이나 대폭 줄였습니다. 월급만 한 달 2200만원이고 그밖에 누리는 혜택이 상상 이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원수를 그렇게 줄인다면 정치인들이 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혁신을 위해 어렵지만 무슨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南 미국 어느 지방의 신문이 사과(謝過) 사고(社告)를 냈어요. 그 지역위원의 비리사건이 드러났는데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보도하지 못한 걸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용중 사장.



사회·문명호 주필.

국회의원 소환-시민주도 관료파면제 도입 정치 혁신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할 필요

우리 언론도 저질후보를 떨어뜨리고 책임을 묻도록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지연 학연에 사로잡혀 무슨 민주주의를 합니까. 한 중 일 3국 정상 회담 때 중국총리가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속비준을 당부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깁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했으면 국회는 비준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자꾸 써야 합니다. 내년에 2가지가 큰 과제입니다. 경제와 총선입니다. 경제는 4각과도(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불안, 국내기업 구조조정)를 극복하고 총선은 정치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을 정말 잘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죠.

宋 민주주의의 핵심 3원칙은 자유 인권 법치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1987년 노태우 체제 이후 꾸준히 높아졌지만 법치는 갈수록 무너져 그대만도 못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박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영국인구는 우리보다 1500만명이 더 많지만 공무원수는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43만9천명인 공무원 수를 20%가 넘는 10만명을 감축해서 공무원연금 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진국 공무원의 대원칙은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support but no intervention)”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원보다는 간섭을 더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 교육부장관한테 교육부를 없애면 큰 업적으로 남을 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처럼 교육부가 없는 나

라가 많고, 있어도 후생 쪽에 치중하는 정도입니다. 공무원 사회를 대혁신 해야 합니다.

사회 내년 경제를 걱정하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南 4가지 과고 가운데 3개가 해외요인입니다. 하나가 국내문제고요. 경제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데 그 마저 안 되고 있으니 더 걱정입니다.

宋 규제를 혁파해야 하고 법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Negative System(順法체계)이고 우리는 Positive System(逆法체계)을 따릅니다. Negative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의지만큼 행동양상이 많기 때문에 규제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하고 거기서 부정부패가 따라잡니다. Positive 하는 나라치고 부패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바뀐 것도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고 통진당을 해산한 것처럼 법체계를 확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 많은 국민의 정신적 기반이 이전에 비해 튼튼하지 못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철학자 괴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서 독일 국민을 일깨운 정신적 개혁이 생각나는군요.

趙 잘못 들으면 제2의 재건국민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을 하자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국민생활의 평균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발목잡는 세력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혁신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 때가 바로 총선을 치르는 내년입니다.

宋 “‘헬 조선’(지옥 조선)에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라는 냉소적 말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업에서 고용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국 수준엔 미치지 못해도 유럽수준인 82~83%로 서비스산업을 높이면 10%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1%에 5만 명이니 10%면 50만 명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 역사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교수님.

宋 역사교과서 얘기를 좀 더 하죠. 1954년 6.25 뒤에 시작해 유신 전까지 검인정 교과서였어요. 유신이후 국정이 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검인정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다양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좌편

향 왜곡 교과서가 돼버렸습니다. 37명의 필진 중 28명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고 그 중 10명은 전교조 소속이며 9명이 대학교수인데 그 중 8명은 완전 좌편향 교수들입니다. 반 대한민국 친북한 내용이 많습니다. 금성 두산동아출판사 교과서가 특히 심하고 교육부에서 고치라고 하면 시늉은 해요. 더 고치라고 하면 법원소송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게 몇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교과서는 그대로 팔려 나가죠. 전국 중고학생수가 100만 명이 넘어 그 판매액이 누구 계산에 의하면 400억 원이라든가 해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큰 이권으로 기득권을 내놓을리 없죠. 국정화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정화를 해서 내용이 바로 잡히면 검인정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회 우리 사회의 이념과 사회갈등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趙 묘안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와 국회 공무원사회를 그대로 놔두고는 동력이 보이지 않아 비판적입니다.

南 이데올로기 문제는 분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단만 안 됐어도 이념이나 교과서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분단상태에서 이데올로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게 없다는 건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 이념문제는 민족과 국가장래를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좌편향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기만을 국민에게 꾸준히 알려야 합니다. 지식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趙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해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만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새해에 경제와 총선 등 과제가 많지만 정치권과 공무원사회 언론 사회단체 등의 분발이 촉구됩니다. [7]

地白體長 포퓰리즘 막아야 한다

정치관 포퓰리즘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 가정의 미취업자 3,000여명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19~24세의 성남시 거주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무조건 주겠다고 선포했다. 대전시 대덕구는 ‘장수축하금’, 고양시는 ‘효(孝)수당’을 준다는 등 끝이 없다. 정치는 일개 기초단체장까지 무슨 아버지수령이라도 된 양 국가 돈을 주민에게 마구 뿌리는 지경에 왔다. 국고를 자기주머니로 여겨 국민에게 인심 쓰는 행태는 가장 저열(低劣)한 포퓰리즘 정치수법이며,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자립의지를 죽이고 장래 거지로 키우는 미끼가 된다.

쓰레기통 뒤지는 그리스 국민들

박원순 시장은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의 고통을 제대로 아는가,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라”고 소리쳤다. 이 같은 감성적 연사는 포퓰리즘 정치가로서 그의 탁월한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취임 첫날부터 초등생 전면무상급식,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서울시와 산하 기관 비정규직 2,800명의 정규직 전환 등 시민집단에 대한 시혜(施惠)정책을 거침없이 단행한 바 있다. 그해 박 시장은 동국대 학생들에게 “등록금 철폐투쟁은 왜 안하나? 감옥에 꼭 가보라”는 연설도 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박시장 같은 여야의 이른바 대권후보들을 얼마나 더 보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은 국가의 여러 병증 중 가장 못된 ‘망국(亡國)의 병’이다. 이 병에 한번 잡히면 국민은 다시 헤어내기 어렵다. 로마, 아르헨티나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 병이 창궐한 나라마다 망했다. 포퓰리즘 정치가들이 얼마나 빨리 나라를 거덜 낼 수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다.

1981년 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재정적자 3%, 실업률 2~3%, 1960~70년대 GDP증가율은 평균 7%를 넘었던 유럽의 경제 우등국가였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결성한 급진좌파정당 범그리스 사회주의운동당(PASOK)이 집권하면서부터 그 운명은 반전(反轉)한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제학 교수이기도 했던 그가 총리취임 후 처음 한 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였다. 이후 노동자임금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그리스 국민은 퇴직이후 자신의 최고연봉의 95%를 받는 ‘연금 천국’이 되어 근로의욕과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모두 빨리 퇴직하고 공무원 같은 연금 급여자가 되기만 바라는 저열한 국민이 됐다. 오늘날 그리스 총 인구의 23%인 260만 명이 연금생활자이며 국내총생산의 12%를 연금지출에 쓰고 있다.

기업은 임금상승, 엄격한 해고 제한, 각종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증가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회피하고, 선박, 화학, 섬유, 가전 등 1980년대까지 그리스가 수출

특별기고



김영봉

·세종대 교수

서울·성남시장 등 청년들에 선심정책 ‘亡國病’ 번질까 우려

저열한 정치인 국민이 앞장서 퇴출시켜야

을 주도하던 산업들은 모두 무너졌다. 현재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관광과 해운업에 의존하며 제조업은 거의 무너졌다. “올리브의 나라 그리스가 올리브 열매를 수출해 올리브 가공품을 수입한다”는 기막힌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복지·연금의 폭발과 기업도산이 거대한 실업사태를 불러오자 파판드레우 정권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확대했다. 국가 재정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이들은 정권의 지지세력이 되는 상승작용이 계속되어 오늘날 인구 1,100만 명 중 공무원이 98만 명에 이른다. 1980년 GDP의 29%였던 정부지출은 2009년 53.1%에 달하고, 그 중 75%가 공공부문 임금과 복지지출로 나간다. 1981년 GDP의 28%였던 국가부채는 2014년 말 177%(3240억 유로)로 증대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는 계속되는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에 기대어 국가부도를 막고 있다. 2008년 위기 이후 임금은 40% 하락했고, 연금은 45% 삭감되었으며, GDP는 25%나 감소했다. 금년 1월 그리스의 실업률은 25.7%, 청년실업률은 50.1%에 이른다. 그리스의 국가기관은 섬을 판다고 하고 여의사 같은 여성들이 매춘에 뛰어들고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나라가 이렇게 거덜 나도 국민은 사회당 정권에 열광하여 계속 집권시켰으며 2009년에는 안드레아스의 아들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를 집권시켰다. 포퓰리즘 병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한국경제 하강기 진입 마이너스 성장우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세 하강기에 진입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잠재성장률, 고령화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고 간판기업들의 경쟁력과 수익능력은 우려스럽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포퓰리즘 정치가 이 과정을 가속시킨다면 국민은 아마 10년 안에 마이너스 경제성장고 시험(考試)처럼 어려운 기업 취업을 ‘뉴 노멀’로 맞이할지 모르겠다. 포퓰리즘 정치는 정부와 정치가의 역할과 권력을 키우

기 때문에 정치가가 손을 못 떼는 것이다. 이 정치가들은 복지정책의 최대수혜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형 집단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는다. 이들은 시끄러운 복지 요구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결과, 국가사회 변화의 주도세력이 생산적 집단에서 의타적 집단 및 이들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리해서 능력과 성실을 갖춘 자는 무시되거나 담세로 역차별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에 기여하는 집단이 사회에서 퇴화하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나가는 나라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 포퓰리즘 정치가 창궐하는 것은 국민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 여론 선도의 책임을 가지는 언론, 지식인 등은 저열한 정치가들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저열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과 비겁을 탓해야하는 것이다. [4]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다. 신을 위해 싸우면 죽고 난 후의 세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정이 강해 잔인한 전쟁이 된다. 전선이 없는 이 잔인한 종교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의 형태로 평범한 시민을 상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알라신의 이름으로 온갖 테러와 악행을 저지른 IS(이슬람 국가)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10세기 초반도 아니고 개명천지 21세기에 종교전쟁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해 많은 공감을 얻었지만 3년도 안 돼 죽은 신이 부활했는지 종교 때문에 다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다.

IS 집단들의 연속적인 테러는 세계를 긴장시키고 세계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베이루트 테러, 러시아 여객기 공중폭파에 이어 11월 13일 밤

IS테러 어디까지 가나

프랑스 파리의 연쇄테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잔혹한 살상으로 지구촌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이들의 무차별 테러는 ‘칼리프의 국가’ 건설을 위한 알라의 이름으로 자행되기에 더욱 가증스럽다. IS 지도층과 추종자들은 종교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은 자신들의 검은 생존탐욕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일 뿐이다.

IS의 테러에 서방 지도국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전폭기를 발진해 IS의 수도인 라카를 폭격하면서 항공모함까지 파견했으며,



김 화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러시아도 서방국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사정보를 공조하면서 폭격에 참여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도 IS 응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제2의 십자군 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십자군전쟁은 1096년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도들이 성지 팔레스티나와 성도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로 부터 탈환하기 위해 13세기 말까지 8회에 걸쳐 감행한 대원정이다. 십자군 전쟁 제1차 원정에서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곧 이슬람군에게 빼앗겼다.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의 막후조정으로 비잔티움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라틴제국이라는 엉뚱한 나라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스도교도들의 8차례 대원정에서 그들은 십자군의 이름으로 약탈과 학살이 이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2차 세계대전은 6백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로 학살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독일 히틀러 나치 파시스트에 대한 서방세계의 정당한 응전이였다.

21세기 들어 패망한 이라크 후세인 잔당 고위 장성들과 일부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야합해서 IS를 만들어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당지역을 점령한 후 세력을 확장, 지금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IS는 점령지 유전에서 채굴한 석유를 국제유가보다 싼 값으로 밀매하고 인질 몸값을 뜯고 심지어는 10대 소녀까지 인신매매하면서 자금을 마련, 교묘한 선전술과 잔혹한 테러로

7면으로 이어집니다.

새해경제 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최근 한국은행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수정 전망했다. 기존의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내년에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것은 세계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유로 존이나 일본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교역량도 감소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및 다른 신흥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

소비활성화 정책 지속가능한지 검토해야

그동안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감지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비록 불황형이지만 흑자이고 내수 중시의 경기부양정책도 주효했다. 그렇다면 내수 중심으로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계부문의 상황을 살펴보자. 저금리 정책과 자산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금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기준 138%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금년 1/4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4%로 증가하여 18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다. 더욱이 가처분 소득의 11% 정도는 빚을 갚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의 규모는 6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0.1%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더 큰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내년도 경제 회복의 성패는 각 부문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다행히 2015년 10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34.8만 명 증가하였고,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실업자의 수는 83.9만 명이다.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일자리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결국 기업 부문의 고용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주력업종인 IT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조선 등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들 업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주력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가격 경쟁도 격화

특별기고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교수

내수중심부양 한계 통화·재정도 어려움 일자리 창출이 최선

경쟁력 위한 혁신 필요 생산성 향상시키고 고용비용 줄여야

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에서도 중국의 산업기술력이 급부상하는 등 제조업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중국의 과잉설비로 인해 저가 제품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지수(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노동비용)는 미국이나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지수보다 높다. 임금이 낮지만 생산성도 낮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혁신체제 효율성 제고 정책 추진을

경기 악화로 2014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한계기업)들의 비중이 약 32.1%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보다 악화되었다. 더욱이 한계기업의 약 74%가 만성적인 한계기업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금년 2/4분기 기준 비금융법인 금융부채는 약 2351조 원으로 기업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2015년 3/4분기에 주요 기업 30개사의 누적 매출액은 623.9조 원으로 작년보다 8.9% 감소하였다. 이는 2011년 매출액보다도 1.2% 감소한 규모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고용 증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혁신체제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세계 2위(2012년 기준)이나, 기술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2013년에도 51.9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기술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비용을 낮추지 못하면 경기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재정을 투입하기 이전에 혁신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금융부문의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핀테크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자금이 창의적인 기업의 육성보다는 한계기업의 수명 연장에 사용되고 있다. 사실 내년도 경제 활성화의 핵심과제는 선순환적 기업구조조정이다.

시장이 환영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금융부문에서 자금 순환의 동맥 경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기업은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운영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 때, 고용도 증가한다. 지금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올바른 개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돼야 한다. 우리 모두 경제 도약을 위해 개혁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6면에서 이어집니다.

악행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 테러를 하면서 자살폭탄테러의 비인도적인 악행을 전개하면서도 ‘알라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들은 자살폭탄테러를 한 지하디스트를 ‘사히드’(순교자)라고 부른다.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종교의 본질은 아니다. 종교의 본질은 생명의 존엄이다. 10대 소녀를 침으로 데리고 살면서 싫으면 단돈 1만 5천원에 팔아넘기면서도 “알라신은 위대하다”고 외친다. IS추종자들의 잔혹행위는 인간 납치와 살상에 그치지 않고 세계문화유적과 문명까지 파괴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더하다.

IS의 만행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슬람 내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복잡

한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국가적 이해타산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기도 하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와 선진국의 무관심도 기여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축출할 때 그의 측근 군부 장성들을 포섭하지 않은 부시의 실책이기도 하다. 미국의 트루먼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을 점령한 후 일왕을 포용함으로써 일본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역사에서 교훈과 지식을 얻지 못한 지도자는 세계를 고달프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어리석은 종교지도자는 자신이 이끈 집단이 위기에 봉착하면 자신을 반성하고 책망하기보다 남을 탓하고 타 종교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폭력을 행사한다. 여기엔 광기와 살기가 수반된다. 사이비 종교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한 눈먼 신도들의 광기를 부추긴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자포자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황하는

청년들은 쉽게 넘어간다. 파리테러의 주범도 젊은 시절 술과 마약에 찌든 인간 낙오자였다고 헤어진 전처는 폭로했다.

기독교는 개종으로, 이슬람은 출산을 통해 교세를 넓혀왔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에게 필요한 정신적인 지주이지만 종교적인 이념이나 가치를 정치적인 이념이나 목표에 대입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제 종교도 변해야 한다. 과학과 인간 지성이 종교의 일정부분을 차지한 21세기는 ‘신의 이름으로’ 만사형통하는 시대는 아니다. 일찍이 호메로스는 시에서 “신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인간처럼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다. 신은 인간세계에 개입해 사건을 만들고 비극을 낳는다”고 노래했다. 세계는 지금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쟁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번 IS의 연달은 잔혹테러를 보면 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인간 본성은 원래 악하다고 봤다. 파스칼도 ‘광세’에서 인간성은 본래 악하다고 썼다. 순자는 악한 인간 본성을 예(禮)와 악(樂), 즉 예절과 음악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예절과 음악으로 인간 악성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 다음에 한비자의 법가가 등장했다.

21세기 들어 세계나 한국이나 법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다. 법을 바로 세우려면 정의가 힘을 얻어야 한다. 궤변과 사이비 종교집단의 외침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 IS의 악행을 물리치고 세계질서와 평화유지를 위해 서방 선진국들이 힘으로 나섰다.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혼란스럽지만 곧 안정과 평화를 찾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은 손처럼 정의의 보이지 않은 힘이 IS 척결에 힘을 보탬 것이다. [☞](#)

국정교과서로 이념전쟁 끝낼때다

어떤 국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 있다. 대한민국에 운명의 순간은 1945년 해방 이후 찾아 왔다. 새롭게 건설될 국가는 조선의 그늘, 전근대의 그늘을 벗어난 근대국가로 모두에게 상상 밖의 세계였다. 역사의 대격변 장에서 좌익, 좌우합작노선, 우익간 치열한 이념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미 군정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75%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념을 좇아 건국하길 희망했다. 만약 그 순간 김구를 위시한 여러 독립 운동가들의 요청, 자유의 가치를 모르던 다수 국민들의 희망대로 국가의 운명이 정해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설명할 것 없이 우리의 오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같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천운으로 자멸의 길을 벗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의 기획자들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체제를 이식하고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시스템을 착근시켰다. 말로는 모두가 잘사는 평등을 부르짖으나 결국 일인 지배, 일당독재로 귀결되는 공산주의의 물결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성공했다. 불과 70년 만에 세계가 놀랄 변영의 기적을 이룩한 역사의 출발은 소수 선각자들의 위대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자유는 힘만이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나와 내 가정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은 6·25 침략전쟁을 막아내고 굳건한 안보의 발판이 되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이런 토양위에서 성공해 낼 수 있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기억하는 진짜 역사,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런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진짜 역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교묘하게 늘어놓고 있다. 검정제 하에서 탄생한 교과서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반대한민국적 사관, 민중사관에 입각해 대한민국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해방 정국에서 좌익, 혹은 좌우의 합작노선을 따르지 않은 것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은 것인 양 기술한다. 국가건설 과정의 여러 어려움은 제쳐두고 친일청산이 미흡한 것만 집요하게 공격하여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과 불의로 기술한다. 건국

특별기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共産化 저지한
대한민국 건국세력
선각자로 기려야

좌편향 검인정교과서
거짓을 가르쳐
진짜역사 되찾아야

대통령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 친일파로 흑독하게 매도당한다. 교과서 속 대한민국은 ‘건국’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는 미생, 미완의 상태다.

또 한편으로 7종의 교과서들은 한결같이 북한을 이성국가, 정상국가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힘쓰고 있다.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이 사람중심, 자립의 세계관이 라고 소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정작 세계 유일의 분단국, 휴전국 국민인 우리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누락해 버렸다. 천안함 폭침,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등 북한이 감행한 무력도발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끔찍한 인권유린과 정치범 수용소, 권력세습과 핵개발로 인한 주민생활의 파탄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학생들이 ‘북한이 대체 왜 나쁜가’라고 가웃거리게 만드는 것이 현행 역사 교과서들이다.

현재 역사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기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제개발 과정을 정경유착, 재벌탄생, 소수의 특권층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경제기적을 일군 기업인들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가르치지 않거나 이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는데 몰두한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한 세력, 불의의 동조자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반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무오류의 성역으로 인식시킨다. 법치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의 그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 들식의 깨어있는 시민이 될 것을 종용한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좌편향이라는 말도 아까울 만큼의 불량품이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교과서, 학생들에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 바람직한 미래상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과서가 마치 좌파적 지식에 뿌리라도 두고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저질 교과서, 함량미달 교과서라는 말이 바른 표현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새롭게 쓰는 일은 소수의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빼앗겼던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되찾아 오는 일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이

념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당연한 것을 외치고 납득시켜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다. 한 시라도 머뭇거릴 수 없는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시대의 사명이다. [국문]

서대문 독립공원과 ‘時局사범’



도준호

·본회 논설위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비전, 옥중생활 체험관, 독립 운동가들의 시신을 몰래 빼돌리기 위한 시구문, 사방에 긴 못을 박아 움푹딱딱도 못하게한 상자고문기구 등도 있었다.

다른 부분은 한말에 자주 독립의지를 고취하기위해 세운 독립문과 그 주변에 조성된 각종 설치물이었다. 거기에는

과고다공원에서 옮겨온 3·1독립운동 기념탑,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면 가슴이 떨리는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我)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3·1독립선언기념탑, 순국선열 2,327위의 위패가 모셔진 독립관, 현충사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립공원과 연결된 안산자락길이었다. 안산자락길은 길 양옆에 조성된 숲으로 도심인데도 공기가 청정한 산책길인 동시에 애국독립을 고취하는 애국의 길이었

다. 길 곳곳에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행적과 사상을 적은 걸개판이 걸려 있었다.

그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독립 운동가들은 물론 이름 없이 일제에 저항하다 죽어간 지사들도 많았다. 그들의 행적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높은 도덕성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그들이 벌인 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넘어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 독립선언서의 세계평화론은 물론 개개인도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김상옥의사의 경우 우리의 독립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 독재 추방을 신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생뚱맞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해방 후 서대문 감옥을 거쳐 간 이른바 ‘시국사범’

을 독립 운동가들보다 더 높이 떠받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김근태 백기완 리영희 등 10여명이 훨씬 넘는 시국사범들에 대해서 개인별 ‘족적’과 함께 이력을 자세하게 전시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별도 방을 만들어 그들의 행적을 기렸다.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살아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서대문감옥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은 곳으로 각인된 우리에게 너무 엉뚱하고 생뚱맞았다. 설령 그들의 행적이 서대문감옥역사의 일부분이라해도 독립 운동가들과 같은 반열에, 어떤 경우 더 높은 반열에 놓는 것은 엄혹한 삶을 살다간 독립 운동가들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우리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대문감옥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독립 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독립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역사관이 개관된 것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98년 11월 15일이다. 김대중정부가 민주화운동을 부각시키기위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권력이 역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다. [국문]

얼마 전 서대문형무소가 의왕으로 옮겨 간 후 그 일대에 조성된 서대문독립공원을 친구들과 함께 참관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와 바로 연결될 정도로 접근이 용이한 이곳은 진정한 독립운동의 산 교육장이었다.

일제에 저항해 처절하게 살아간 우리 선배 독립 운동가들의 행적, 그들의 행동을 잔혹하게 탄압한 일제의 고문기구들, 독립문 등 독립과 자주를 현창하기 위한 유적 등이 전시되거나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 탓인지 그날이 토요일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인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진지하게 참관하고 있었다.

공원은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일중심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였다. 감옥 7동, 사형장, 지하여자감옥 등에는 독립 운동가들의 행적과 기록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순국한 57분의 의병명단 앞에서는 숙연함이 앞섰고, 18세의 나이로 3·1운동 1주년을 맞아 제2의 만세운동 불꽃을 다시 피운 유관순열사의 영정 앞에서는 요즘 그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일부세력의 행동을 생각하며 분노를 느꼈다.

강우규의사의 의거를 재현한 매직

한국외교 ‘눈치’ 아닌 ‘논리’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및 한일수교 50주년이 된 2015년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더욱이 동서냉전이 종식된지도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분단 구조는 아직 냉전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1895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지난 100여 년 간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은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으로 기울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강대국간의 긴장이 초래되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시 세력균형의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님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균형이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해양세력과 이를 변경하려는 신흥세력간의 마찰이 생기고 이로 인한 긴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에 당사자들이 이러한 마찰을 어떻게 잘 조정하여 상호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타협 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인 것이다.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의 긴장관계는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中國부상 위기보다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

지금 한·일간의 갈등 구조도 크게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과정에서 보면 다소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중국의 부상을 보는 시각에 있어 한·일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얼마 전 GDP 규모만으로 보면 중국에 G2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약 20년 전 한·중 수교 당시에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지금 한국은 대외 무역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리게 된 것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 여러 나라에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은 서둘러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인적 왕래도 가장 많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내에서 고고도방위미사일(THAAD) 관련 논란이 크게 일어난 것도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기인 한 점도 있다. 거기에는 우리정부의 안이한 대응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중국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대응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이 자국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방위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만약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를 말릴 방법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한일관계의 장기적인 표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결코 미국이 일본 쪽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다. 미국이 자신의 동북아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두 동맹국이 잘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Asia Pivot)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 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한일 간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오키나와 등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유사시 주한미군의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美國은 日本이 군사대국으로 안가리라 생각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기 위한 헌법 해석과 이에 따른 방위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 것은 주일미군의 작전능력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매립작업도 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는 일본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주변국의 우려와는 달리 군사대국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일본의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와 군사 대국화를 반대하는 다수 일본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우방국인 일본으로서도 큰 관심사일 것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친숙한 중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방대한 관광지를 보고 온 사람이라면 중국에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최근 20여 년이 유일하게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비

특별기고



유명환

·세종대학교 이사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우리입장 정연히 개선 남중국해-THAAD등 美-中 설득 해가야

日보다 도덕적우위서 감정접고 국익생각 역사인식 대처 필요

정상적인 행태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이 임박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중국의 태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 통일되는 것을 과연 중국이 용인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韓-中-日 정상회담 국민불안 해소 성과

우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중국이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 중국에게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당장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의 유운산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오랜 동안 검색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주목된다. 아직 중국이 북한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이와 같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비록 역내 국가간 경제적 및 인적 교류가 증대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군사 및 안보 면에서는 긴장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이 지적한 ‘아시아의 역설’(Asia Paradox)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도 복합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 자주적이라는 의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반미와 반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견국인 한국은 자신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히 생각하고 논리적 바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논리가 옳다면 상대방도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중견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입장을 논리 정연하게 개선하는 것이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나 고고도방위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이러한 원칙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힘이 약한 중견국이 강대국과의 외교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논리 정연한 자신의 입장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라고 생각된다.

그간 검색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자신의 잘못은 없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좀 더 도덕적 우위에 서서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는 없을 것 인지 아쉽다. 감정을 접고 냉철히 국익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단기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은 많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킨 점에서 크게 평가할 만하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한국이 역내 평화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자신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이유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이다. 자신이 북경에 못 가는 이유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 더욱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7]

언론가 소식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편집 인력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인터넷신문은 취재·편집 인력의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

출해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신문이 6,000개사 넘게 급증하면서 어뷰징(동일 기사 반복 전송)과 선정적 광고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데 따른 것이다.

고대영 KBS 사장 취임



KBS는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TV공개홀에서 제24대 고대영 사장(사진) 취임식

을 가졌다. 고대영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BS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老人 배려하는 방송은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는 2005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코맥 매카시의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노인이 뜻하는 것은 패배자(Loser)이다. 무기력하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어서 외면 받는 사람들, 또는 무능하게 현실을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 소설은 조엘 코단과 에단 코단 형제가 감독한 영화로 제작돼 2007년 11월 9일 개봉됐는데 제80회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조연상, 각색상을 거머쥐었다.

세상물정 잘 모르는 새내기들

1980년대 미국 서부 텍사스의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과 영화의 제목을 보며 오늘의 한국 방송을 떠올렸다.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시청자들인 한국의 노인들을 생각한 것이다.

우선 한국 방송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젊은이들 일색이다.

세상 물정이나 제대로 알까 싶은 젊은이들이 뉴스와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특히 여성 진행자들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 아나운서들이 뉴스의 메인 진행자로 나선다. 이들은 특하면 흥분하고 어조를 높인다.

뉴스 진행자는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된다. 뉴스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고함을 쳐서도 안 된다. 시청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방송들은 모두 이런 원칙하에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뉴스 진행자가 전혀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혀를 찬 아사히 TV의 뉴스 스테이션 진행자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뉴스 진행자들은 소리를 높여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또한 뉴스 진행자들이 스타 의식에 사로잡힌 탓인지 뉴스 진행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진행자도 있었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뉴스 진행자는 사건의 밖에서 객관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해야지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진행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고성과 감정 드러내기를 하며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속사는 그런 것은 문제시하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뉴스 진행자의 경우 사정이 이 정도이고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비전문가들이 방송을 장악한지는 오래 되었다. 배우

방송시평



유자효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티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뉴스진행자 젊은이 일색...겉핥하면 흥분
비속어 이름 연예인 활개...욕설까지 난무

나 탤런트, 연예인은 모든 분야의 만능 선수인 듯하다. 한국의 TV는 연예인에게 장악되었다.

세상 조롱하는 듯한 ‘구라’

필자가 방송위원회의 언어심의위원으로 있을 때이다. 전체 회의에서 현역 아나운서인 여성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어느 진행자가 비속어를 자기 이름으로 쓰는데 그대로 두어도 되겠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바로 김구라 씨였다. 그는 물론 본명이 있다. 그런데 ‘말’의 비속어인 ‘구라’를 자기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당시 황봉알 이란 사람과 인터넷 라디오방송에서 시사대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분명히 세상을 조롱하는 의도가 담긴 이름들이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이름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그냥 넘어 가기는 했다.

그는 지금 거의 전 종편과 지상파를 넘나들며 갖가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그의 비속어 이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방송사는 아직 없다. 한국 방송은 품위 같은 것은 관심 대상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방송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화면에서 그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638만 여명이다. 생산 가능 인구(3477만 여명)의 18% 수준인데 2040년에는 1650만 명까지 상승해 생산 가능 인구(2887만 여명)의 57%까지 상승하리라 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TV들은 철저히 젊은이 대상으로 제작되고 있고, TV에

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TV만 보고 있으면 한국은 젊은 사람들만 사는 나라 같다.

방송 편성은 전 국민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 그래서 방송 선진국들은 전문 언론인들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해설한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여성 진행자도 40, 50대 주부 언론인들이 등장한다. 이는 당장 CNN을 보면 알 터이다. 한국의 방송에서는 월터 크롱카이트나 댄 레더 또는 크리스틴 아만포가 배출되기 어렵게 돼 있다. 젊은 사람, 예쁜 여성, 연예인들을 선호하는 의사 결정 과정과 구조 때문이다.

이 책임은 이런 현상을 방기하는 시청자들에게도 있다. 방송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탤런트 김수미씨가 출연한 국가 기간방송 KBS의 ‘나를 돌아봐’의 한 장면을 보자.

지켜만 보는 시청자들도 책임

“출연료가 어떻게 되나요?” “출연료 묻지마 XX야” 개인 사이에도 싸움이 났던 욕설을 시청자들은 멍하니 보고 있다가 뒤집어 써야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조영남 씨도 이경규 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욕설프로그램인가?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다가 PD를 폭행해 하차한 배우 최민수 씨도 MBC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 씨의 과거를 두둔하며 그의 안티팬을 향해 ‘언다 대고 판단질이야, XX XX 짜증나게’ 라고 욕두문자를 내뿜었다. 젊은 래퍼들이 등장하는 케이볼 방송에서는 한층 더하며, 인터넷에서는 ‘욕설 모음’이 편집돼 확산되고 있다. 시청자들이 무시당하고 TV를 보다가 불시에 봉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방송의 품위를 논하는 자체가 엉뚱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욕설이 편집되지 않고, 자막까지 넣어서 방송되거나 뽁-소리를 넣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는 강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방송은 나라의 창이다. 해외를 여행할 때 TV를 보며 그 나라를 판단한다. 우리 TV들은 생산 가능 인구의 18%를 점하는 노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70대 탤런트 몇 명을 해외 여행시키는 프로그램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연예인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일 뿐이다. 국민 전 연령층을 배려한 프로그램, 우리의 문화와 전통의 층이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국격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4]

신문 읽은 학생 좋은

한국 직업능력개발

신문을 구독하는 가정의 고등학생들은 비구독 가정의 학생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과목별로 6~8점 높고,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취업률과 임금 수준도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처음 나왔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모의 학력이 낮더라도 신문을 읽으며 성장한 학생은 소득·학력의 불리함을 상쇄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고교시절 교양·문학 서적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2004년 당시 고교 3년생이던 일반계 및 전문계 학생 4,000명(현재 30세)을 대상으로 11년간 추적 조사한 ‘신문·독서 읽기와 학업 성취도 및 취업’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직능원은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간다는 사실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라며 “‘활자 매체의 힘’이 생각보다 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집에서 신문을 구독한다’고 답한 당시 고3 학생(1,849명)들의 언어영역 평균 표준점수(200점 만점)는 96.5점으로 ‘구독하지 않는다’는 학생(2,031명)의 점수(89.35점)보다 7.15점 높았다. 수리 영역은 5.91점, 외국어 영역에서도 7.79점 더 높아 ‘신문 읽기’ 효과가 입증됐다.

신문 읽기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의 정규직’ 등 이른바 ‘좋은 직장’ 취업률과 임금 수준도 높였다. 직능원이 지난해 같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약 1,700명에게 ‘현재 직장상 임금 수준’을 묻은 결과, 고교시절 신문을 구독한 학생들의 좋은 직장 취업률이 32.2%로 조사돼 비구독 가구 학생(26.5%)보다 5.7%포인트 더 높았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구독 가구 학생 223만 원, 비구독 가구 학생 213만 원으로 10만 원 차이가 났다.

교양·문학 서적을 11권 이상 읽은 학생과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3점에서 많게는 19점 차이가 났다. 특히 서적 독서량이 같더라도 신문 구독 가구의 학생이 비구독 가구 학생에 비해 언어·수리·외국어 과목 모두에

올해 수능도 신문 읽

2016학년도 수능 국어·사회·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시사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평소에 신문을 읽고 주요 이슈에 관심을 가진 수험생이 유리했을 문제들이다.

1교시 국어 영역(A·B형)에서 공통 출제된 1~2번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1주년인 된 남한산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남한산성은 2014년 시대별 축성술이 총위적으로 결집된 초대형 산성이라는 점 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이 됐다. 남한산성의 곳곳에 나타난 시대별 축성술이 유네스코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체감 난도가 높았던 ‘국어 2번 포스터 만들기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셈이다. 국어 영역(A형)에는 ‘희토류(稀土類)’와 관련된 지문이 등장했다. 희토류는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들며 일본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 물질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대학, 좋은 직장 갔다 11년간 추적조사

2004년 고3생 4,000명 표집 대학·취업·월급 등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지난 2004년 고등학교 3학년(1986년생) 학생 4,000명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표집했다. 직능원은 이 학생들이 당시 고교 입학 후 3학년 여름방학 기간까지 문학·교양 서적을 몇 권 읽었는지, 집에서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지 여부 등을 기록했다. 또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소득 수준, 학력 수준과 독서량도 함께 조사했다.

이후 직능원은 학생들의 수능 성적, 대학 진학, 졸업 후 취업 현황, 월평균 임금 등 삶의 주요지표들을 11년 동안 매년 추적 조사했다. 수능 성적과 진학 대학은 정보 공개 동의하에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4,000명 가운데 대학 비진학자 등을 빼고 수능 성적이 확인된 경우는 약 2,200명 이었다. 2013년 현재 다니는 직장은 직능원 측이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설문 조사했다. 총 1,700여명이 설문에 응했다.

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높고 좋은 직장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모의 학력이 낮더라도 신문을 읽으며 성장한 학생은 소득·학력의 불리함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지만 신문을 구독한 학생은 가구 소득이 월 200만~400만 원이라도 신문을 읽지 않은 학생보다 수능 과목별 평균 점수가 3~4점씩 높았다. 취업 시장에서 200만 원 미만 소득에 신문 구독 가구 학생의 ‘좋은 직장’ 취업률은 31.3%로, 200만~400만 원 소득에 신문 비구독 가구 학생들(27.1%)보다 높고, 400만 원 이상 소득인 비구독 가구 학생(31.4%)과 비슷했다.

읽는 학생들이 유리

이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도 최근 이슈를 반영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2번은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월급을 못 받은 경우 구제책에 대한 내용이었다. 같은 과목 18번은 자동차의 배기구 결합으로 운전자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회사가 리콜 후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최근 폴크스바겐의 리콜 사태를 연상시키는 문제였다. 사회 문화 1번에서는 입시 한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 7번에는 허세를 부리는 행위를 뜻하는 신어(新語) ‘스웨그’가 등장했다.

한국사 20번에서는 지난 6월부터 재개된 개성 만월대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을 소재로 남북 협력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직업탐구 영역 가사·실업② 3번에서는 지난달 신문 기사를 지문으로 활용해 전자금융 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YS평가’ 春秋筆法 아쉬워

신문시평



박석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 전 언론법학회 감사

兩金시대 역사속으로…검증·해석 미흡 “불법폭력시위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어나지 못하고 있다. YS가 아들과 필담으로 나눴다는 ‘통합과 화합’을 주제로 중앙일보가 “국가의 통합을 고뇌해야 한다”는 사실을 썼다. YS 정부에 정치 탄압을 받았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탄생 백주년(25일)을 맞아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동아일보가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의 창조적인 계승”을 촉구하는 사실과 칼럼을 실었다.

“테러 방지법 제정 아직도 요원”

국내외 테러와 분열·배신·갈등의 정치로 11월 신문은 살벌하고 암울했다. 130명이 사망한 13일 파리 테러 1주일 만인 20일 말리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알무라비툰이 170명의 민간인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 또 21명이 사망했다. 이슬람주의 테러집단 IS(이슬람국가)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파리 6곳에서 470여명을 살상한 동시다발 테러는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에 버금가는 ‘유럽판 9·11’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IS 격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국인 인질 참수·화형·여객기폭파·대량 학살·성폭행·성노예화·공포통치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온 IS는 파리 테러를 ‘폭풍의 시작’이라며 워싱턴 런던 이태리 벨기에가 다음 표적이라고 협박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가 즉각 IS 공습에 나선데 이어 미국 지상군 파병이 논의되고 있다. IS를 토벌하는 미국 주도의 ‘십자군 동맹’에 파병한 한국도 IS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제 테러 위협에 대처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야당의 거부로 법제화는 요원하다. IS의 파리 테러 공격으로 세계가 놀랐던 14일 서울 도심은 쇠파이프, 각목, 횃불 등을 들고 나온 불법폭력 시위로 100여명의 경찰이 부상하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

되는 아수라장이었다. 공권력이 반체제 세력의 폭동에 무기력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IS 등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국내 반란 세력의 제어를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14일 광화문 집회 시위는 67%가 ‘과격했다’고 답했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며 경찰을 공격했던 복면 시위대의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선 독일 프랑스 미국 형법처럼 복면 금지법 입법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의 과격폭력 시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재판 뒤집기’ 우려

1989년 11월 9, 10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후

쿠야마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개막된 공산주의 세계화 막간극이 인민민주주의 및 소련의 종말과 함께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사뮈엘 헌팅턴은 1993년 ‘포린 어페어지’에 탈냉전 후의 세계가 ‘문명의 충돌’로 점철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공산권 붕괴와 팩스 아메리카나 시대 이후 8개 문명권(서구 기독교, 유교, 일본신도, 이슬람, 힌두, 러시아정교, 남미, 아프리카문명)의 격돌과 분열을 예측했다. IS 테러뿐만 아니라 영국 스페인 중국의 분열 운동과 전범국 일본의 도쿄재판 뒤집기를 통한 전후 질서 흔들기도 헌팅턴이 예언한 문명충돌의 일환이다.

“북한 체제와 구별해 주었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뉴욕 타임스와 야당의 비방과 강대국 경제 압박 등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과 미국 일본에 할 말을 하며 국제질서 개편을 잘 준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13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 그동안 3차례 예비 접촉 제안에도 침묵했던 북한이 20일 실무 접촉을 전격 제의했고 정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동의 전 통문을 보냈다. 4시간도 안 돼 신속하게 수용한 것이다. 8·25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3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한반도 상륙 발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로운 대화를 나눠야할 것이다. YS 타계 후 새누리당의 체질개선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체제의 화염병세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공론화되고 있다. 새 국제질서재편에 대처할 정치 정상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화문-서울광장 市民에 돌려주라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는 이제 불박이장처럼 틀어 얹은 세월호 천막촌과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반정부 폭력시위장으로 이용됨으로써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특히 지난 번 광화문 광장에서 민노총과 반정부단체들이 벌인 격렬한 폭력시위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날의 난동 사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어서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그날따라 서울광장일대는 천막들이 말끔히 치워져서 시위장소로는 제격이었다. 시위대가 동원한 각종 도구들도 다양하고 파괴적인 것들이었다.

쇠파이프와 쇠갈고리는 기본이고 차벽위에 설치된 경찰 망루를 쇠갈고리로 걸어 넘어뜨리는 장치라든가 살수차 호스차단조까지 조직적인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날 만일 경찰이 반정부단체의 시위를 그냥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보나마나다. 14일 쫓기대회를 주도하다 경찰에 쫓겨 조계사로 피신한 민노총 한상균위원장이 프레스센터 앞에서 행한 기자회견내용을 보면 짐작되고도 남는다. “박근혜 정권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데 (모두들) 연대해 달라”고 선동하느라 열을 올렸다. 그런 혁명가적 기질을 가진 위인이 그렇다면 왜, 뭐가 두려워서 절간으로 도망쳤는가. 자신의 주의주장이 뒤흔치고 신념이 확고했다면 투옥을 각오하고 투쟁할 일이지 종단으로 피해서 신변보호와 중재까지 요청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과격시위를 대하는 야당의 굴절되고 전도된 자세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문재인 대표가 과격시위에 대해 자세를 충고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채질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았으니 한심하다. 이런 사태의 중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있다. 서울광장에 세월호 천막농성장을 형성해 교통방해와 마이크소음 등이 문제가 돼서 여론이 나빠졌을 때 박 시장은 철거종용은 고사하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세월호 천막농성 장기화 불법 폭력시위장으로 ‘법치’ 조롱 名所돼

박원순 서울시장 어떤 치적 남길지 외국인도 부정평가

고 도리어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뭘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천막촌을 리모델링까지 해줬으니 그 속셈이 의심된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7월 14일엔 천막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문책성 인사조치(대기발령)까지 당했다.

이 대목에서 대뜸 떠오르는 것이 언젠가 박원순 시장이 던진 말이다. “날 보고 어쩌란 말이나. 유족들을 내쫓으란 것이냐. 잡아가려면 날 잡아가라” 박 시장의 이 같은 필요이상의 유족 감싸기의 저변에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을 넘는, 차기 대권과 결부된 고도의

오늘의 니대르

이흥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박 시장은 취임한 후 거시적 안목에서 수도 서울의 발전적 개발과 행정지평을 넓히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 보다는 전시행정에 급급했던 경향이 두드러졌다. 시시콜콜한 일들, 예를 들

자면 광화문 광장에다 벼농사를 지으려다 실패한 일 따위, 그 중에서도 웃지 못 할 발상은 서울시청 옥상에서 양봉을 하려다 중단한 일,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일원동 등 강남 도심에서도 벌을 기르는 양봉가들이 늘면서 일대의 주민들이 한 때 벌떼의 습격으로 떨어졌다는 웃지 못 할 난센스도 빚어졌다는 뒷배기가 한 때 화젯거리였다.

외국인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공평하다. 그러면 벽안(碧眼)의 외국인이 서울을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서울에 와서 18년째 살고 있는 프랑스인 뱅자맹 주아노씨의 날카로운 평가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는 특히 서울과 파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그것도 연전에 박원순 시장 면전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가스폭발이 염려되던) 청계천을 연중 맑은 물이 흐르는 서울시민의 산책코스로 복원하고 중앙차로제로 교통대란을 해결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광화문광장을 만들고 한강 르네상스 구상을 실현했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은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 뱅자맹의 관찰은 날카로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골조를 세우고 오세훈 전 시장이 인테리어를 마무리한 서울을 박 시장은 과연 어떻게 그 속을 채워졌느냐는 문제를 던진 것이다. 뱅자맹의 지적을 떠나서라도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래 서울발전을 위해 딱히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한 업적이 생각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서울발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청년수당’ 등에 매달리는 등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중앙정부와 늘 충돌하는 양상이다. 다른 것은 그만 두더라도 박원순 시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무질서한 난장판으로 변한 광화문 광장을 다시 쾌적하고 질서 잡힌 ‘서울시민의 광장’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4]

사우회 소식

OB산악회 설악산 등산

경향신문

OB산악회(회장 장 옥)는 지난 11월 6일 산악회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멀리 설악 한계령에서 주전골을 통과해 오색을 거쳐 하조대 휴휴암 바닷가를 거닐고 경포대 횃집에서 흥겨운 뒤풀이를 가졌다.

동우회보 45호 발행

동아일보

지난 11월 20일 동우회보 45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는 김광희 본회 자문역의 세정낙수(3면), 손세일 회우의 저서 ‘이승만과 김구’ (4면), 산클럽 부부동반 가을 단합대회(8, 9면), 사진클럽(10면)소식을 비롯, 읽을거리가 많다.

사우회보 ‘朝友’ 17호 발행

조선일보

지난 11월 22일자로 사우회보 ‘朝友’ 17호를 발행했다. 방우영 전회장 미수를 축하하는 소식을 머리기사로 해 나온 이번 호는 인보길 조우 회장이 방우영 회장을 인터뷰한 기사가 1·2·3면에 걸쳐 실렸다. ‘통일과 나눔’ (이사장 안병훈·본회 회우) 소식, 정광현 본회 원로회우의 ‘86세 시인탄생’ 소식(6면), 손세일 본회 회우의 저서 ‘이승만과 김구’ (8면·최서영 본회 자문역 의장 서평), 채승우 조선일보 전 사진부기자의 ‘두번째 인생 스케치(11, 12면), 김용발 본회 회우의 글 ‘나는 죽을 때까지 기자다’ (16면)등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韓友會報’ 17호 발행

한국일보

지난 11월 11일자로 한우회보 17호를 발행

했다.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의 송년 메시지를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이번호(타블로이드 8면 컬러)엔 최정호 본회 회우(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중학동 시대 ‘한국일보와 백상을 말한다’ (2면), ‘한국일보를 빛낸 사람들’ (천관우 편·3면), 이재승 본회 회우의 ‘나의 특파원 시절’ (5면)과 신간안내 등 다양한 소식이 실렸다. 한국일보 회우신간 중엔 흥원기 본회 명예회장의 ‘신문산업 어제와 오늘’, 황원갑 회우의 ‘단심-포은 정몽주’ 등이 소개됐다.

청계산 산행

헤럴드

지난 10월 31일(토)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에서 가을 산행을 가졌다.(사진) 뒤풀이 모임에서는 매회 등산 참여 인원이 늘어감에 힘입어 친목



행사를 좀 더 확대 다양화하기로 했다.

사우회보 32호 발행

MBC

지난 11월 15일자로 사우회보 32호를 발행했다. 이번 회보는 문화탐방 낚시대회 바둑대회 등산대회등 친목모임과 다양한 회우 동정이 실렸다. 특히 최준식 회우의 그때 그이야기(4면), ‘김동엽, 그리고 이윤희 김기주’ 와 정호준 회우의 ‘하조마를 귀촌이야기’ (6면), 우윤균 고문의 ‘원로를 만나다’ (7면)가 눈길을 끈다.

金泳三 전 대통령님 가시는 길에



송정숙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전 보사부장관

꿈수-술수 싫어한 분

대세 지장없으면

오불관언

正道로 진검승부

단호한 실행력

大道無門 큰 가르침

한 私的인 추모

추모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뜨거웠다. 우리가 사랑했던 YS는 그렇게 떠났다.

그날 하관식을 마치고 현충원 정문 앞에서 대책 없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타고 오던 자가용이 우리 앞에 멈췄다. 흡사 저승에서 만난 보살처럼 다가와 우리를 태워 준 것이다. 그들 부부는 차 안에서 장례식 중계방송을 보면서 오다가 장례식을 끝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가슴에 장례식 리본을 단 ‘어르신들’이 막막하게 서 있어서 태울 생각을 했노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함께 서 있다가 함께 탄 O씨가 말했다.

“YS가 끝까지 우리를 돌봐 주셨네...”

우리가 ‘YS’라는 애칭으로 평생토록 부르기를 좋아한 그분은 명민하거나 근엄하거나 뛰어난 재능으로 압도하는 지적(知的) 능력을 지닌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분이 즐겨 쓰던 말에 이런 것이 있다.

“머리는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건강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으니까.”

이 말을 들으며 쿡쿡 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 머리가 안 좋다는 것을 아나보지? 남의 머리를 빌린다는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하면서.

그렇지만 이 말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 말인가. 지능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자기를 앞서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겸손하게 의존하면 얼마든지 난국도 벗어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일을 시도할 수조차 없다.

그렇다. 그분은 건강했었다.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다. 정신이 놀랍게 건강한 분이였다. 불건강한 방법의 꿈수나 술수를 싫어한 분이였다. 그래서 대도무문(大道無門)하기를 평생 바랐던 분이다. 자질구레하게, 좀스럽게, 치사하게 불건강해지는 일을 아주 경계한 분이다. 그렇게 심신이 건강한 분이였다. YS를 빗댄 블랙 유머가 많았다. 특히 영어에 관하여는 아주 많았다. G 발음이 ‘ㄷ’일 수도 있고 ‘ㄱ’일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시리즈 같은 것이 있었다. 또 영어 ‘Q’로 시작되는 이름에서 퀘일과 케일의 차이 같은 것을 구별하지 않아서, 강연을 할 때면 청중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그런 지적에 능통했다.

‘학교’는 ‘핵교’가 되고 ‘핵(核)’은 ‘혁’이 되지만 고칠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은 ‘대세에 지장 없는 일’이므로 오불관언이었다. 그 또한 건강함의 징표였다.

모든 가능성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손을 대지 않아서, 오래 버리며 비수를 가슴 속에 품고 양갈을

을 생각하며 절치부심하는 힘으로 정치를 한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달랐다. 정도를 성큼성큼 달려서 이른바 진검승부(眞劍勝負)를 택한다. 그러므로 원한을 속에 담아두지 않는 정치를 한 분이다.

ㅎ씨는 정당의 지방위원회를 맡고 있었다. 어떤 지역을 처음 맡게 되어 관리를 위해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였다. 중앙당의 우두머리인 YS에게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다. 지방당을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 할 때였다. 인사를 간 그 ㅎ씨에게 YS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주었다. 으레 그걸 바라고 인사를 가고 그러려니 하고 인사를 받는 것이 말하자면 관레이던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본 ㅎ씨는 깜짝 놀랐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에 비해 숫자의 자릿수가 2단계는 높았다. 그것을 그냥 챙기면 강도가 된 기분일 것 같았다. 그는 YS를 다시 찾아가 봉투를 도로 내놓고 ‘뭔가 착오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YS는 그랬는가, 하고 한바탕 웃었다. 웃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냥 가져가소. 그것도 다 당신 복이요.”

한번 준 것을 ‘우째’ 도로 뺏노, 하는 것이 그분의 건강함이었다. 한편 단호해야 할 때의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분이 대통령일 때 공직자에게 일체 골프를 치지 않도록 신칙했다. 많은 공직 골프쟁이들이 불평을 했다. 조그맣고 쪼쪼한 배드민턴이나 치는 분이라 골프 같은 근사한 운동을 모르니까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등, 괜히 골프가 사치한 놀이라는 주변의 말만 듣고 순간적으로 내린 결정을 독심으로 밀고 간다는 등, 갖은 불평의 말을 쏟아놓았다.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게도 들었다.

그런데 현직에서 떠난 뒤의 그분이 골프에 관하여 하는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도 골프 한다. 골프 재미있다. 나도 좋아 했다. 그런데 골프라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노상 골프 얘기만 해. 갈 때부터 다녀와서까지 골프 이야기만 해. 그게 너무 빠져들게 한단 말야. 공직자는 그러면 안된다.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하게 되지. 그거 안 된다, 공직에 있는 동안은.”

이만큼 분명하게 단호한 생각에서라면 골프 금지령이 타당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나도 소급해서 할 수 있었다.

건강하게 결단해서 단호하게 실행하는 일, 그것은 정직의 본연이다. 그분을 사랑하고 기리는 행렬이 놀랍게 이어지는 것을 보며 새삼스럽게 사람들의 본질에 대한 천착의 힘에 두려운 경이감을 느끼게 된다. 펄펄 날리는 눈발 속에 그분은 하관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성스럽게 유감없이 친밀한 정을 담아 흠을 뿌려 드렸다.

부디 당신의 하나님 앞에 평안히 이르소서. ㉔

되새겨야 할 마지막 유필

민주화의 거산(巨山) 故 김영삼 대통령이 생전 병석에서 남긴 마지막 휘호 ‘統合和合...’ 이 시대에 깊이 되새겨야 할 가장 필요한 유필(遺筆), 영면 하소서!

누구를 위한 이견투구 인가?

좋은 정치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나쁜 정치꾼은 국가를 조롱하고 국민을 팔아먹는 세상, 오호 통재라! 지금 도하 언론에 비친 정치꾼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國害 모습이라, 누구를 위한 이견투구(泥田鬪狗)인가?

교육부는 苦育部인가

역사는 국가의 기록이고 국민의 교본이며, 교사는 국민 교육의 거울이다. 낱조된 국가 교과서, 왜곡된 국민 교육이 도를 넘었다고 야단법석인데, 교육부는 교과서도, 교사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苦育部(苦育部)인가?

유한준(편집위원)

'100자 발언대'

통일로 가는 길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한정된 행사 갈아 가슴 답답. 실향민의 70년은 망향을 그리는 한이라.

방법이 없을까. DMZ의 한쪽을 갈아서 실향민들에 수숫대 집을 짓고 한줌의 쌀을 갈아가는 오두막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꿈을 꾸어본다.

한라산 고사리, 백두산 산나물 등 남북의 물산을 가져다 물물 교환하는 꿈은 어떤가.

거창한 계획보다 사람 사는 작은 것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남북통일의 길 아닐까.

김호곤(전 합동통신 기자)

태극기 못 달고 해 저무는 광화문

태극기 게양대도 못 세우고 한 해가 저무는 대한민국 광화문의 광복 70돌.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바라보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폭력 난동, 복면 시위 공연할 명석 깔아주려고 서울시

는 태극기 안 보여주는 겁니까?

김영환(편집위원)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설마 이 나라가 노조의 노예국가는 아니겠지요? 설마 이 나라의 불교단체가 노조의 불모는 아니겠지요? 설마 이 나라의 공권력이 노조의 적대세력은 아니겠지요? 설마 한상균이 다음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최병요(편집위원)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수도 서울 심장부에서 무쇠괴음 가면의 광란놀이, 무법천지 소음천국 토해내는데 테러 방지법은 1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나라. 세모의 길목에서 망년지교(忘年之交)를 다시 떠올리면서 지나온 길을 조용히 되돌아본다.

각설하고 을미(乙未)년→병신(丙申)년 송구영신 하소서!

전용호(편집위원)

이시대 참언론인 공적 기리다

24회 대한언론상 시상식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2015년도 대한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이미 보도된 대로 ‘내가 모르는 내 아이’를 기획, 심층 취재 보도한 조선일보 정권현 부국장과 최경운 최재훈 기자팀이다. 또한 대한언론인회 문명호 주필과 성낙오 편집위원장은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이날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의 ‘내가 모르는 내 아이’ 특별기획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환기시켜 주었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대한언론상 수상을 계기로 가정과 사회가 다시 한 번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소망했다.

신우식 대한언론인회 고문은 이날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날 대한언론상을 수상한 몇몇 인사들의 예를 들며 이 상의 권위와 위상에 대해 소감을 피력했다.

조선일보수상자 상금 통일나눔펀드에 기부

조선일보 정권현 편집부국장, 최경운 최재훈 사회부기자는 제24회 대한언론상금 100만원을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했다. (조선일보 11월 21일자 보도)



수상자와 함께 기념촬영.

심사평

인보길 심사위원장

금년도 대한언론상은 심사 끝에 기획 취재보도와 특별공로상 두 부문에서만 수상자가 나왔다. 접수된 수상후보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 있었으나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 심사를 거친 결과 조선일보 특별취재부 기자 3명과 대한언론인회 편집진 두 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주요 테마나 사건 중에서 기획취재부문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것 중엔 특종 성격이 강하고 추적 보도도 평가할 만했지만 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라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조선일보 특별취재부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보도한 ‘내가 모르는 내 아이’는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사 보도 해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모범적으로 수행 한 사



인보길 심사위원장

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공로상 부문에 대한언론인회 문명호 주필과 성낙오 편집위원장이 선정된 것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대한언론’을 제작 해온 노고로 볼 때 만시지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별공로 부문에서의 심사에서 일치된 의견은 대한언론인회의 얼굴이라 할 ‘대한언론’이 회보의 성격을 뛰어 넘어 하나의 영향력 있는 정론지로 거듭 날수 있게 한 탁월한 기획력이 높이 평가됐다.

논설·논평 부문은 수상 후보자가 한 명도 없어 심사에서 제외 됐다. 내년도엔 좀 더 많은 언론인들이 권위 있는 대한언론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우식 본회고문 축사

격려사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의 ‘내가 모르는 내 아이’ 기획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환기시켜 주었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번 대한언론상 수상을 계기로 가정과 사회가 다시 한 번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명호 주필과 성낙오 위원장의 경우는 대한언론인회가 발행 하는 ‘대한언론’의 오늘이 있기까지 남모르는 고생과 노력이 컸음을 늦게나마 인정받은 것입니다.

대한언론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과 수상자 가족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오늘 대한언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인보길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5집 출판기념회

200여명 참석 대성황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한 ‘실록 언론인의 길-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5집 출판기념회가 지난 11월 17일 오후 3시 1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200여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세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 책은 우리 언론의 살아있는 발자취이자 산역사”라고 말하고 “게재된 글들이 단순히 회고담이 아니라 우리 언론사의 1차적 자료이며 더 나아가 우리 현대사의 자료가 되는 귀중한 증언들임을 발견했다.”는 어느 회우의 말을 인용, 이 책 발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대한언론인회가 펴낸 ‘못다 한 이야기’는 바로 ‘역사의 증언이자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논평하고 지금까지 196명의 기자가 경험담을 쓴 것은 필자 동원면에서도 기록적이라고 평했다.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존경하는 선배들의 글을 읽으며 머리가 숙연해 짐을 느꼈다”며 계속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룬 출판기념회.



정진석 회우 서평.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축사.



김은구 회장 인사말



이형균 간행위원장 인사말



제재형 고문 건배제의.

24회 대한언론상 시상식 성황

기획취재상

수상소감

특별공로상

부모로서 자책-자성하며 보도

정권현 (조선일보 부국장)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한 생명이 사회의 훌륭한 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은 부모에게 있다는 게 ‘내가 모르는 내 아이’ 기획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부모 된 자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다했을까요. 이번 기획을 하면서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자책(自責)’ ‘자성(自省)’을 거듭했습니다.

제 자식 잘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자녀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꿈을 이해



수상소감을 말하는 정권현 부국장.

하기 위해 많은 대화와 교감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번 대한언론상은 우리 아이들이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곳곳이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본 기획의 노력을 평가해준 것이라 기사로서, 또 부모로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바라보는 부모상 탐색

최경운 (조선일보 기자)

우리의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부모의 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부모인지 의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부족한 제 모습을 은연중에 꿰뚫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부모의 애절한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아이를 낳아 밥 먹이고 옷 입힌다고 부모 도리를 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알기에 앞서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보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 아이’ 기획 시리즈는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임과 동시에 아이가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탐색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번 대한언론상은 부모들의 이런 탐색 노력에 대한 채택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법보다 진짜문제 제기 역점

최재훈 (조선일보 기자)

이번 기획은 해법을 찾기 보다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정작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책임은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부모들 스스로 고민해보는 계기만 마련해도 성공이라는 소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학부모와 자녀, 교사, 아동·심리·교육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울기도, 함께 웃기도 했고 대안과 대책을 고민하느라 밤새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독친(毒親)’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쓸지 말지, 사례의 구체화를 어디까지 진행해야 할지, 오히려 역효과

가 나오지 않을지 등 취재팀의 고민 또한 끝이 없었습니다.

취재는 쉽지 않았지만 부모 된 자로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설득에 머뭇머뭇 다가온 수많은 부모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진정한 용기와 고백이 쏟아진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아이의 삶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아이의 삶을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한언론상은 이런 한국 부모들의 노력에 대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뿌듯한 자긍심 다시 느껴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



수상소감을 밝히는 문명호 주필.

제가 대한언론인회가 수여하는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족한 저는 정말 당혹스럽고 또한 송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 훌륭한 선배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해 왔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여러 선배들과 주위로 부터 격려의 말씀을 들으며 한편 기쁘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964년 서울 시내 한 복판에 꽃전차, 물 전차가 다니던 시절, 대학을 갓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입사했을 때 신문사 문을 들어서며 가슴은 그야말로 자긍심과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상을 수상하며 그 때와 똑같은 벅참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몇 분을 기억하려 합니다. 처음 신문기자가 되었을 때 제게 역사의식과 기자정신을 불어 넣어 주신 당시 편집국장이시던 천관우 선생님을 비롯해, 홍승면 김성한 최호 박관상 송건호 신용순 선배님, 그리고 사건기자로 출발한 저를 혹독하게 훈련해 주신 이혜복 당시 사회부장, 또한 저를 논객의 일원으로 이끌어 주신 당시 주필 권오기 김진현 남시욱 선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을 마치고 한국언론의 중심인 프레스센터의 대한언론인회에서 작은 소임을 맡았을 때 한결같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우식 이정석 제재형 조창화 홍원기 김은구 회장님께도 저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년전, 매일 매일 취재보도 임무가 새롭고 가슴 뛰었던 그때 저는 어느날, 신문사 정문 앞에서 진철수 선배와 함께 자랑스럽게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저는 프레스센터 정문을 나서며 아내와 함께 이 특별공로상 패를 안고 또한 자랑스럽게 기념사진을 한 장 찍으려 합니다. 물론 이 공로상패와 기념사진은 제 아들과 손자들에게 물려 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집’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답

성낙오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장)



수상소감을 말하는 성낙오 편집위원장.

뒷통수가 근질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부끄럽다고 해야하나...

뭘 “잘 했다”고 이렇게 ‘큰 상’을 차려주시는지 열떨떨한데 그래도 존경하는 선배·동료들이 차려주시는 ‘상’을 사양할 수도 없어 얼굴 두껍게 받기로 했다.

벌써 7년이 훌쩍 지났나? ‘광우병’에 미친 세상이 온통 ‘촛불’로 뒤덮여 혈떡일 때 ‘공권력’은 실종되고 ‘언론’은 숨어버렸다.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나?” 한숨을 내쉬는 때 ‘대한언론’ 제작 참여 제의를 받고 ‘되물’ (?)이나마 ‘바른 소리’는 해야겠다고 나섰었다.

‘회보’가 아닌 ‘正論紙’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겠다고 ‘큰 소리’로 ‘固執’을 피웠는데 흔쾌히 받아주신 당시 조창화 언론인회 회장님, 그리고 내외의 여러 잡음에도 계속해서 밀어주신 홍원기, 김은구 회장께 먼저 머리 숙인다.

당초의 ‘꿈’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역시절보다 ‘애’는 더 쓴 것 같다. “할 말은 해야겠다”고 열심히 ‘기획’하고 편집했다. ‘대한언

론’의 위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가늠할 수 없지만 그동안 회우들을 비롯한 주변의 관심은 꽤 끝났던 것 같아 이불 뒤집어쓰고 안도의 웃음 머금을 때도 있다.

그동안 내 ‘의도’와 ‘고집’에 호응해주신 선배 동료 회우여러분, 그리고 외부 필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뜻을 같이해 함께 뛰어온 최희조 편집위원, 기획과 집필자 섭외에 탁월한 문명호 주필, 교열에 헌신하는 전용호 편집위원, 항상 옆에서 온갖 굵은 일 처리해주시는 정운종 상임이사께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경북일자리알림e www.gbjob.kr



경상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경북일자리알림 e웹
www.gbjob.kr
회원가입 및 구인·구직등록으로 구인공고, 취업정보,
입사지원, 실시간 자동매칭, 알선 등을 편리하게

전화상담
1544-8819

방문상담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팩스 054)716-0017
구인·구직신청서를 팩스로 전송

경북일자리알림 e앱
앱에서 가입한 구직자는 앱을 통해서도 취업정보, 입사지원,
실시간 자동매칭, 알선 등을 내 손 안에서 편리하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 드립니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경북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도내 다양한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구직신청과 직업알선은 물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총괄 기관입니다.

구직활동을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효과적인 구직활동 방법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방법과 동행면접까지 일자리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드립니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는 다양한 직종의 우수한 인재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하시면 구인신청과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기업회원으로 일자리센터의 지속적인 채용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쉽게 걸을수 있는 곳에 살면 더 건강하다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교통시설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이 보다 건강하다는 두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관심을 끈다.



이광영

·분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한편 일본 모리구치시 건강검진소(Moriguchi City Health Examination) 소장인 추지(Hisako Tsuji) 박사는 2012년 신체검사를 받은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같은 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자가

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가용 출퇴근 자에 비해 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과체중 비율 44%, 고혈압 유병률 27%, 당뇨병 유병률이 34% 더 낮았다. 추지 박사는 이에 대해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적게 걸을 뿐 아니라 운전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걷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지 박사는 그 이유는 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걷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출퇴근 시에 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이 걸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거리에서 걷거나 자전거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출근 평균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4]

캐나다 토론토 소재 임상평가과학연구소(Institute for Clinical Evaluative Sciences) 추(Maria Chiu) 박사는 최근 거주 지역이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식품을 구하기 위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추 박사는 걸어 다니기가 어려운(low walkable) 지역에서 걷기가 쉬운(highly walkable) 지역으로 이사한 온타리오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 후 10년 안에 고혈압 유병률(prevalence rate)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추 박사는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에 운동이 일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걷기를 일상화하면 헬스클럽 같은 곳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혈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대한언론’ 송년호 편집회의 열려

12월 송년호 편집회의가 지난 11월 9일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김은구 발행인을 비롯 편집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는 12월 송년호를 제작하기 위한 회의로, 금년 한해를 총결산하고 새해를 전망해보는 특별좌담회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옛동산에 올라

박현대 ·전 KBS사장



새벽에 눈을 뜨고, 멀거니 천장을 쳐다보다가, 문득, 어릴 때 불렀던 가곡 한 곡이 떠올랐다.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버혀지고 없구료

지팡이 도루 짚고
산기슭 돌아서니
어느 해 풍우엔지
사래 저 무너지고
그 흙에 새 솔이 나서
키를 재려 하는구료

아마도, 곡목은 ‘옛 동산에 올라’였으리라. 그러면서, 이 가사의 뜻이 결코 범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도달했다. 세수를 하고 내 독서실에 나와, 친교가 있는 부산의 한 대학교수에게 작사자와 작곡자를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로 부탁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작사자는 저 유명한 시인이요, 사학자인 노산 이은상 선생, 작곡자는 한국 가곡의 창시자인 흥난파 선생이었다.

나는 아직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는 않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이고, 고향을 찾아가도, 옛날 내가 알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란 시어는 가슴을 친다.

지팡이 도루 짚고 산기슭 돌아서니
어느 해 풍우엔지 사래 저 무너지고
그 흙에 새 솔이 나서 키를 재려 하는구료

이 대목도 실감난다. 이만한 작품이 어찌 범상한 작사자, 작곡자에게서 나올 수 있으리오. 지금의 젊은이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인터넷도 잘하지만, 어쩐지, 생각은 옛날 분들보다 가벼워진 것 같다. 사적인 대화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고, 라디오나 TV 진행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런 것을 느낀다. 처신하는 것을 보아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고, 언론도 무조건 빼박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것 같다. 정치적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그것이 애국적인 일인지, 세상의 변화에 상응하기나 한지를 모르는, ‘그저 해 본다’는 정도로 가벼운 것 같다.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퇴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대목도 많다. ‘애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국’을 하고 있다. 꼭 남에게 이용당하기 알맞은 언동들이다. 남의 나라를 향하여, 역사인식이 어떻다고 비판하면 서도, 정작 본인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왜 비판받아야 하며, 박정희는 왜 타도되어야 하는가. 전두환은 무엇을 잘못했고, 김구는 왜 영웅으로 추대되어야 하는가. 이완용은 무조건 매국노인가. 미국은 철천지 원수인가. 우리는 정말 자기의 생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가 진보당 해산 판결을 하던 날도, 방송들은 ‘후폭풍이 우려 된다’고 입을 모았지만,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 그 ‘후폭풍’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한다. 판결은 판결대로 보도를 하고, 만약 후폭풍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따로 보도를 하면 될 일이지 만 미리 이것을 예고하는 것은 언론이 지켜야 할 ‘상궐’을 일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은상 시인의 시에는 ‘가고파’라는 것도 있다. 내 고향에도 바다가 있었다. 집 뒤편에는 대밭이 있고, 마당에는 큰 감나무에 빨갛게 흥시가 매달리던 사천 ‘수박골’ 내 고향 수석리 537번지, 이 번지에 지금은 마을은 없다. 이미 해방 전에 일본의 공군 비행장 부지로 징발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다만 내 호적상의 지번일 뿐이다. 마을 아래에는 ‘농창’이 있었고, 거기 올라서면 드넓은 사천평야가 보였다. 저 멀리 들판 끝에는 대가족이 한울타리 안에 살던 내 외갓집이 있었지만, 그 ‘중선리’도 몽땅 바닷가로 떠밀려갔다. 외갓집 동네에서는, 가끔 이곳을 찾아가는 나를 가리켜, ‘후지이 새끼’ 같다고 했다지만, ‘후지이’는 이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한 일본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 바닷가를 왼편으로 돌아가면 사남면 유천리, 이곳 바다 한 부분에 언(둑)을 막아, 내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재원을 삼고자 논을 만들어, 한 때 ‘기재 언’이라는 농장을 내 아버지가 만들었으나 지금은 ‘삼성항공’의 부지에 편입되었다. ‘기재’(麒在)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올라가볼 ‘옛 동산’도 없다. 그러나, 내 머리 한 구석에 남아있는 이 기억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남을 것이며, 나의 애국심의 원천이 될 것이다. [4]

회우동정

가나다순

단국대 석좌교수



남선현(전 JTBC 사장) 회우= 단국대 겸임교수 직에서 석좌교수로 임용돼 출강중이다. 사무실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 서관 639호 (전화 031-8005-3687)

주한미군 2사단 방문 격려행사



박범진(사회민주주의포럼 공동대표)회우= 11월 26일 오전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2사단 본부를 방문, 주한미군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11월 27일(금)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우리 한국은 얼마나 불평등한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한미클럽상’ 수여



봉두완(한미클럽회장)회우= 11월 1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버나드 샴포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미클럽상’을 수여.

제6회 ‘민세상’ 수상



손세일(청계연구소 소장·전 국회의원)회우= 11월 30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제6회 민세상을 수상했다. 민세상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내고 민족운동가·언론인·역사학자로 헌신한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1891~1965) 선생을 기리는 상이다.

‘역사교과서 어떻게...’ 특강



송복(연세대 명예교수)회우= 11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킴스 모닝포럼’에서 ‘역사교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강연.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당선



양희부(전 케이블 방송협회장)회우= 11월 28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임원 선거에서 122명의 대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압도적 다수표인 115표(94%)를 얻어 1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풍석문화재단 고문으로 참여



이억순(전 세계일보 주필·사진위), 손일근(전 한국일보 고문·사진아래)원로 회우=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이 설립한 풍석문화재단에 이억순 회우는 상임고문으로, 손일근 회우는 고문으로 선임됐다. 풍석문화재단은 조선 현종시대

의 경제학자 풍석 서유구의 저서 ‘임원경제지’를 번역해 그의 사상을 알리고 추모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문학지에 시 13편 발표



이학주(전 한국경제 편집부장)원로 회우= 최근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한울문학지에 ‘어둡고 화국’ 등 3편의 시를 발표한 데 이어 초동문학 동인지 ‘초동문학 초록향기’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등 10편의 시를 발표했다.

사회봉사대상 심사위원장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회우= 2015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Ndaily News가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시상식은 12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정교과서 관련 세미나



최귀조(한국경제 사우회 회장)보회 이사= 11월 25일 14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김영호(전 산자부장관) 경북대 경상대학장을 초청해 ‘동아시아속의 민주주의와 국정교과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바른말 보도상’ 시상



한영섭(한국방송인 동우회 회장)원로위원회 위원장= 12월 10일 11시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4회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 및 원로회원 위로연을 가졌다.

‘토벌’ 제12호 출판기념회



한영탁(전 세계일보 편집부장)회우= 경북 영덕 출향 문인으로 지난 11월 7~8일 고향에서 ‘토벌’ 제12호 출판 기념회를 개최.

편집기자협회에서 공로패



함정훈(전 국민일보 편집국장·이사)상담역= 12월 3일 오후 7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박문호)가 주최한 ‘편집기자의 밤’에서 평생을 편집 일에 몸 바친 공로로 공로패를 받는다.

이봉창의사 추모 약사보고



홍인근(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사)회우= 지난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이봉창 의사 묘지에서 열린 제83주기 이봉창 의사 추모식에서 약사 보고.

곽노형 원로회우 별세



곽노형 원로회우가 지난 11월 20일 급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1월 2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고인은 1925년 8월 10일 충남 천원(현 천안)에서 출생하여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53년 세계통신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고인은 그후 동화통신을 거쳐 합동통신 편집부국장

겸 편집부장, 출판국장 사사편찬부장 조사부장, 월간 국민문고 편집주간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특히 사사편찬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항공 동양통신 금성전선 한국광업제련 새마을금고연합회 사사편찬 주간을 맡아 활약한데 이어 금성정보통신 10년사와 20년사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유족은 1남 2녀.

言論社 사우회 송년회 일시

- *경향신문 = 12월 10일(목)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
- *동아일보 = 12월 15일(화)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서울신문 = 12월 9일(수)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 *신아일보 = 12월 7일(월) 오후 5시 30분 서울 정동 이파리아노
- *조선일보 = 12월 16일(수) 오후 6시 조선일보 정동 별관(미술관) 2층
- *중앙매스컴 = 12월 1일(화) 오후 4시 서소문 호암아트홀
- *한국일보 = 12월 7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
- *헤럴드 = 12월 7일(월)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KBS = 12월 17일(목) 오후 5시 KBS 본관 식당
- *MBC = 12월 16일(수) 오후 6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
- *SBS = 12월 7일(월) 오후 6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

◀ 주소 변경 ▶

- 김준길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63길 11, 201동 801호 (경남아너스빌 2차) (우)16854
- 김택근 회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374 신원마을 1단지 106동 201호 (우)10579
- 남선현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220 현대 힐스테이트 305동 702호
집전화 : 031-264-3892 휴대전화 : 010-3898-1500
이메일 : sunnam@kbs.co.kr
- 송충섭 회우= 경기 하남시 위례중앙로 185 6307동 1003호 (학암동 현대엠코타운 플러리체) (우)13014 전화 : 02-430-9697
- 오판룡 회우= 경기 김포시 장기동 청솔로 20 현대아파트 202동 1102호
- 윤흥섭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5로 72 214동 2001호 (신봉동 신봉마을 자이 2차아파트) (우) 16813
전화 : 031-266-93311
- 이영일 회우= 서울 중구 소공로 35 101동 1202호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우)04632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10월 29일 부터 11월 27일까지)

국기일(16)	김영호(16)	노영태(15,16)	임응식(14,15)	최희조(15)
김성수(15)	김주철(15)	이문조(15)	정성진(15)	한양인(15)
김양섭(16,17)	김택근(13,14,15)	이상호(15)	조덕연(16)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22일 열리는 대한언론인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2년 연속 연회비가 미납되지 않아야 함(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2조 9항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회우경조사

부음

류종현 회우= 11월 19일 대전 한국병원에서 모친상. 발인 11월 21일

▶ 바로잡습니다 ◀

지난호 안병준 회우 동정 중 서울신문 사우회 ‘수석부회장 겸 회보편집인’은 ‘부회장 겸 회보편집인’으로 바로잡습니다.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한국이앤엑스
KOREA E & EX INC.

소중한 당신의
‘가치’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KIMES 2016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6. 3.17- 20 / COEX
www.kimes.kr

KOBA 2016

국제방송 · 음향
조명기기전시회

2016. 5.24- 27 / COEX
www.kobashow.com

K-PRINT WEEK 2016

인쇄기자재전/레이블전
디지털인쇄전/인쇄패키지전

2016. 8. 31- 9.3 / KINTEX
www.kprintweek.com

Koplas 2017

국제 플라스틱
고무산업전시회

2017. 3월중 / KINTEX
www.koplas.com

한국이앤엑스. Tel. 02-551-0102 / ex@eandex.co.kr



딜로이트가 만드는 공정의 임팩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은 세계 최대의 회계·컨설팅 기업으로 회계감사·세무자문·재무자문·컨설팅 등에서 한 발 앞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와 최고의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전략 수립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Deloitte makes an impact that matter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컨설팅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 201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